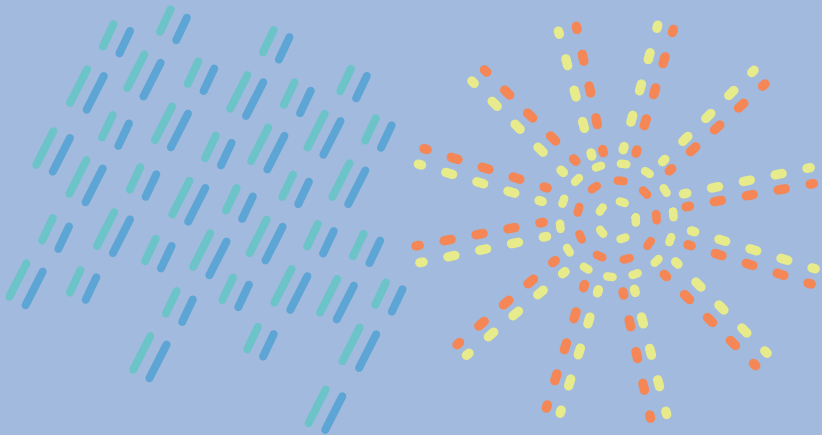


정릉야책

정릉 마을잡지 2021.no.07



희망의 불씨를 찾아

날씨가 하루 사이에도 천양지차를 보이며 지금 계절을 뭐라 설명하기 힘드네요. 우리나라를 사철이 뚜렷하여 살기 좋다고 했던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이상한 날씨에 기후 변화 아니 기후 위기를 실감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쯤의 변덕스러운 날씨는 화제 거리도 못 됩니다. 작년에 54일 간의 장마를 겪었으면서도 기후 위기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관료와 행정부,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기후 위기에 관한 인식 정도가 매우 낮습니다. 미세먼지와 코로나처럼 피해가 눈에 보여야 마음이 움직일까요? 북극에 빙하가 녹아내리고 남태평양의 작은 섬 투발루가 물에 잠겨도 아직 나는 괜찮다고요?

올해 호박이닝콜책-야책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열심입니다.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한 달에 한 번 기후위기를 주제로 하는 북 콘

서트도 엽니다. 이번 <정릉야책> 7호 인터뷰 역시 기후위기 해결의 핵심인 에너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에너지 운동가 신근정 선생님을 만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 및 해결 방법을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해도 되겠어?’라는 냉소주의가 아닌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에너지 문제와 함께 요즘 제로웨이스트 실천이 확산되고 있는데 ‘용기낸 대학생1’이라는 이름의 제로웨이스트 유투버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천의 배경과 어려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또 하나의 인터뷰는 정릉에 있는 미혼모 대상의 대안학교 <자오나학교>의 아가다 수녀님을 만났습니다. 사회에서 별로 이야기되지 않는 미혼모들과 함께하는 학교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정릉야책>의 자랑이며 큰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코너 <스삭스삭>은 주민들의 에세이로 채워지는데 이번 호의 에세이들은 하나같이 개인의

삶을 통해 세상살이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어 잔잔하면서도 진한 감동을 줍니다. 집 앞에 피던 매화 나무와 골목을 걷다 만난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만나는 우리들의 삶,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개를 판 날에 대한 회상과 반려묘를 떠나 보낸 이야기에서 만나는 동물과의 관계, 무의식을 풀어내는 글쓰기와 걷기에서 오는 즐거움, 집이라는 공간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독후감 그리고 어머니 백신 맞는 날의 경험을 통해 나이듦에 대한 솔직한 소회, 떠나간 애인을 그리는 마음을 감각적으로 펼친 글, 제주도 여행에서 새롭게 만난 바다 이야기, 총 열 편의 에세이 모두 각자의 개성 있는 글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줄 것임을 장담합니다.

〈요리조리〉에서는 자신의 원체험 공간인 미아리 산동네의 기억을 재기억하는 소설가 김소진을 이 시대의 잃어버린 이야기꾼으로 소환하며 운동 오지라퍼의 운동 권유는 엉덩이 기억 상실이라는 주제로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전직 간호사가 말하는 구조적인 의료계의 모순 속 간호사들의 노동과 대안으로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자연주의 생활기록 예술인의

옥상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유쾌한 이야기와 텃밭 이상의 텃밭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삶과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슬로우 푸드의 가치를 실현하는 슬로카페 달팽이가 고립 청년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시시밥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번 호 요리조리 코너도 다른 호 못지않게 짙은 구성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들어가는 말을 쓰는 이 순간에도 비가 내립니다. 어제는 30도가 넘으며 에어컨을 가동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걱정이 커졌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우리 집은 어떻게 올 여름을 나야하나? 에어컨을 틀 수 없는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폭염의 날씨에 쉬는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하나?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대면 전기를 얼마나 사용할까? 그 전기는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탄소를 줄일 수 있을까? 걱정이 끊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박이닝쿨책·야책은 오늘 하루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찾아 열심히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찾는 이 길에 함께 해주시겠조?

에너지 운동가 신근정을 만나다



인터뷰이 신근정(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인터뷰어, 정리 이밥

2020년 지구를 습격한 코로나의 위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하루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감염되며 수만의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우려만큼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기후 위기에 집중된다. 코로나 위기의 근본 원인이 급격한 산업화와 기후 위기에서 비롯됐음을 모르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잘 모른다. 텀블러만 잘 챙기면 되는지, 쓰지 않는 전원 플러그만 뽑으면 되는지, 플라스틱 분리수거를 잘 하면 이 기후 위기가 극복되는지 많이 헷갈린다. 잘 모르면 잘 아는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최고 일터, 15년 이상 기후 위기 극복 활동, 특히는 에너지 운동을 해온 활동가에게 길을 묻기로 했다.

그나저나, 에너지 운동?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운동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길을 에너지 활동가에게 묻는 것인가? 혹시, 지금의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모두 지구 환경을 위해 재생 에너지로 교체하자는 운동인가? 아니면 예전 변혁운동 시기의 활동가들처럼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교체하려는 운동인가? 많은 상상이 있었지만 질문은 단순한 것부터 시작되었다.



에너지 운동이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의 에너지 시스템은 거대 산업에 연결돼있다. 즉, 석탄, 원자력, 가스 발전을 통해 대규모로 생산된 전기는 한전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발전, 유통, 에너지원들의 관리 - 석유, 가스 등의 수입 및 유통 - 또한 정부의 통제 하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한국 사회의 에너지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에너지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에너지 운동이다. 그렇게 에너지 시스템을 분산시켜야만 지금 우리에게 닥친 여러 문제들 - 석탄발전, 원자력발전, 송전탑, 기후 위기 문제 등등 - 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운동가들이 지난 십 년간 해왔던 활동들도 주로는 중앙 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을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과 그에 따른 사회적, 기술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활동에 집중돼있다. 그렇기에 에너지 운동은 ‘전환’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밀양 전쟁』이라는 책과 〈오래 된 희망〉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둘 다 밀양 송전탑에 관한 이야기인데 형광등을 땅에 꽂기만 해도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다. 과연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살아도 되는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의 쓰지도 않을 전기 생산을 위해 그 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집중해서 건설하는 것도 이상하고, 먼 대도시로 전기를 송전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것도 많을 텐데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아주 이상한 일인 것 같았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도시에서 에너지 생산을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먼저 송전탑 문제부터 말하겠다. 처음에 환경운동가들이 송전탑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은 핵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서였다. 즉, 송전탑 건설을 막다 보면 결국 발전 비용이 올라가는 등의 경제성 문제로 인해 핵발전소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었다.

송전탑 관련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어떤 전기를 송전할 것인가?’의 문제다. 원자력으로 만든 전기의 송전탑은 나쁘고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의 송전탑은 괜찮은가? 무엇으로 생산했던, 전기는 결국 전기이다. 밀양 송전탑의 핵심 문제는 고압의 전기를 송전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지역 에너지 분산형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면, 전기를 멀리 이동시킬 필요가 없기에 그렇게 고압의 전기는 만들 필요가 없고 전자파 발생도 줄어든 것이다.

둘째는 ‘송전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피해 보상’ 문제다. 송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그로 인한 주민 피해는 최소화되고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충분한 피복과 민가 및 논밭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매복을 하는 등의 방법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의 합의이다. 송전탑 문제 또한 송전탑 그 자체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라는 프레임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현대 사회의 문제들은 모두 그 다양한 원인들이 얽혀있기에 에너지 문제 또한 얽혀있는 여러 원인들을 실타래를 풀 듯 풀어야 한다.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균형 문제를 살펴보자.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대도시, 특히 서울의 에너지 소비량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대규모 발전이 필요한 이유는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중공업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하나, 그런 주장은 일단 현실적이지 않다. 다만 자기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해내는 것에 힘쓰는 것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실제로 각 지역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의 고민과 활동도 그 지점에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지역 에너지 활동가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제 막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경남에서는 관과 시민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경남형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 테이블이 구성되었고, 경남과 충남의 석탄발전에 대한 연대 활동 회의체도 만들어 졌다.

현 산업구조 하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의 산업구조를 그대로 둔 채 에너지 전환에 대해 노동자들과의 합의가 가능한가? 즉,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전환 없이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가?

두 가지 움직임을 소개하겠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기업이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 때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민주노총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도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분야에선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데, 얼마 전 정부가 탄소중립을 표방했다. 우리나라의 관치경제 구조에서는 산업계가 정부의 입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수출을 위해서도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국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시멘트, 제철, 자동차 업체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 구성도 추진하게 되었다. 다만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술의 변화 등을 기업이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산업의 전환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이기에 산업 전환에 관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그러한 합의는 아주 어려울 것이고, 특히 기존 기득권의 반발도 클 것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큰 세력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의 경제는 관치경제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는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있는 것 아닌가? 최근 우리 정부가 기업, 그리고 검찰 및 언론에게 얼마나 무력한지 목격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기존 기득권들과 산업 시스템의 전환에 관한 합의가 가능한가? 기득권이 합의의 파트너 자격은 있는가? 그들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 제압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활동은 무엇인가?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집단은 정부나 의회권력이 아니라 관료집단이며, 이 관료집단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기후 위기 문제와 에너지 전환에 공감도 동의도 하지 않는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력은 기득권들에 비해 너무 미약하기에 합의를 위한 테이블이 구성될 수도 없다. 그렇기에 지금은 우리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세력을 키우는 것은 집회만으로는 부족하고, 생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비용 때문에 탄소제로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 개개인이 권력이라는 인식을 세워야 하고, 그렇게 권력화할 수 있는 조직도 있어야 한다. 기업이 라벨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도 라벨을 없애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시민사회가 세력화를 시켰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에너지 활동가들은 집회도 벌이고, 지역사회 거버넌스에도 참여하고,

시공에도 참여하여 에너지 전환의 실제 사례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지역 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 또한 국가와 지역 에너지 계획 개입, 에너지 시설의 공적 소유, 지역 기반, 교육을 목표로 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중공업 등 거대 산업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국적 운동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기후 위기 비상행동에서는 포스코의 석탄발전 투자를 막고, 금융사들이 신규 혹은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출을 못 하게 막는 집회 및 RE100 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가?

기후 우울증에 빠지는 활동가가 생길 정도로 시간이 없는 것은 맞으나, 그럴수록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모든 활동이 필요하다!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을까? ‘모든 사람의 모든 활동’이라는 말이 무척 근사하게 들린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모든 활동도 어쨌든 이 기후 위기 시대에는 수동적인 느낌이다.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막는 것에 집중되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지금 시민운동 시대의 활동가들이 이상으로 삼는 대안사회가 있는가?

전 세계의 나라들이 갖고 있는 역사/정치/사회/문화/산업적 배경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기후 위기에 대처를 잘 하는 어느 한 나라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레타 툰베리의 말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맞는 기후 위기 극복의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다. 다만, 툰베리의 말대로 우리가 위기를 위기로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있는 해결책을 쓰고 있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탄소배출제로가 기업에게도 이익 아닐까?



기후 위기는 특히 큰 기업들에게 큰 리스크다.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된 적도 있었고, 출시된 신차들이 물에 잠긴 적도 있었다.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도 내연기관차를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치 못하면 부품 납품도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에게 탄소 배출 제로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거대 기업들과 기득권들은 시민들을 보수/진보와 같은 프레임을 통해 배제시키려 한다. 그들이 정하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시민들의 세력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운동과 기후 정의를 위한 활동도 주류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질 않거나 잘 못된 프레임으로 보도하는데, 이러한 환경 하에서 에너지 및 기후 활동가들의 아이디어와 활동들을 대중에게 어떻게 알려나갈 수 있을까?

주류 언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다. SNS의 영향력이 조종동 보다 크다. 한편으론,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정보는 이웃으로부터 얻은 것이라 한다. 언론에 반응하면 할수록 그들의 프레임에 갇히게 될 뿐이니 주류 언론은 이제 무시해도 될 정도로 우리의 세력은 상당히 크다.

신근정 활동가의 답은 나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준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바꿔낼 수 있을 만큼 큰 세력을 이루고 있기에 기득권이면 기득권, 기존 언론이면 기존 언론이 정하는 프레임에만 갇히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해봐야겠다는 다짐을 갖게 한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활동!

* 신근정님과과의 인터뷰는 호박이닝쿨책-야책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m44rGZqrd4&t=2846s>)



환경운동,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용기 낸 대학생1의 '용기 낸 식당' 프로젝트

인터뷰이 홍소영

인터뷰어, 정리 문지원

성북구 안암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지구를 위한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벌어졌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제로 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목표로 시작된 '용기 낸 식당'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지정식당에서 다회용기를 이용해 포장하면 참여 횟수에 따라 최대 3천 원 페이백이 가능하다. 고려대학교 캠퍼스 인근의 가게들이 참여하였으며, 찜닭 같은 식사류와 더불어 마카롱, 케이크 등의 디저트까지 다회용기로 포장할 수 있다.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이 '용기 있는' 환경운동을 펼친 이는 누구일까? 용기 낸 대학생1이라는 별명으로 활동 중인 홍소영님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골목상권 X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 프로젝트 '용기넌 식당'

용기내 포장하세요

다회용기를 이용해 포장하면 최대 3천원 페이백!

대상	지정 식당을 이용하는 소비자	기간	3/22 월 ~ 5/20 목 (60일)
----	-----------------	----	-----------------------

참여 방법 및 할인금

1. 지정 식당에서 다회용기를 이용해 포장, 식당에서 받은 쿠폰으로 페이백을 위한 인증 진행
2. 개인 참여 횟수에 따라 페이백 1회 1,000원/2회 2,000원/3회 이상 3,000원
3. 5회 이상 참여 시, 2만원 상당의 제로웨이스트 키트 증정

*개인 참여 횟수는 입금품 작성 횟수로 집계됩니다.

참여 식당

정호	돈까스 하우스 / 효미당 / 치즈를 사랑한 찜닭 / 일마옥 / 하오미라
참실이	꾸미롱 / 고고인디안국진 본점 / 히포크라테스 스프 / 춘천 닭갈비
정은	국수사랑 / 연어사랑 / 일곱집 제기동 헤이피 / 미뇽 / 떡볶이는 보약이다

인스타	@container_student	유튜브	용기넌 대학생1
-----	--------------------	-----	----------

이 활동은 숭례나눔의 품씨 사업이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기 넌 대학생1'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1인 크리에이터, 23살 홍소영이라고 합니다. 환경 문제 중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학생의 일상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용기 넌 대학생1로서 기획하신 프로젝트가 대단히 흥미로웠어요.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는 부분을 관찰하고, 그 대안을 실천에 옮기거나 대체품을 찾아 사용해 본 후기를 영상으로 공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MZ 세대를 타겟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용기 낸 대학생1’이라는 표현이 참 귀여우면서 참신하게 느껴졌어요. 각각 평범한 단어들이 합쳐져 개성이 생긴 느낌이었죠. ‘용기 낸’이라는 언어유희도 있으면서 ‘1’이라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센스까지. 또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개성 있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명칭을 참 잘 정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 낸 대학생1’에서 ‘용기를 냈다’의 의미는 첫째, 다회용기를 내밀 때의 다회용기를 의미합니다. 둘째, 그 다회용기를 건네기 위해 용기(courage)를 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다회용기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를 위해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용기(courage)를 내서 용기(container)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생1’인 이유는 지나가는 행인1처럼 지나가는 대학생1인 저도 환경을 위해 다양한 실천을 하니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환경단체나 환경부가 아닌 그냥 일반인인 저조차 하고 있다! 라는 의미 말이지요.

코로나-19 이후로 환경문제가 화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극적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한 순간에 이렇게 행동하는 분을 만났는데요! 어찌다 이렇게 ‘1’인으로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동물을 사랑하는 학생으로서 동물들이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빙하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있는 북극곰이나 배 속에 쓰레기가 가득한 동물의 사진을 보면서 당시에 느꼈던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고민했죠. 그 결과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인간으로서 쓰레기를 줄이거나 에너지 절약을 하는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에어컨 안 쓰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 일상 속에서 제로 웨이스트 습관을 길들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며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될 때, 제가 하고 있는 작은 실천들을 타인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대학생1에 불과하지만 이런 저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은 환경단체나 환경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모두가 할 수 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성북구 정릉 아리랑시장에서도 2020년에 용기내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시장상인 분들과 협력하여 플라스틱 용기 대신 집에서 가져간 반찬통 등으로 물품 구매를 하는 것인데요. ‘용기 낸 식당’ 프로젝트의 반응은 어땠나요?

온라인에서 영상으로 ‘용기 내 캠페인’을 알리고 실천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다 보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의 메인 콘텐츠인 ‘용기 낸 식당’의 경우, 평균 조회 수가 2만 회 정도 나오곤 합니다.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단순히 영상 시청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데는 아직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을 문화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오프라인 프로젝트 참가자의 기대 인원이 150명 정도였는데, 총 55명 참여했습니다.

참여를 독려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참여하신 분들의 후기나 다양한 의견들이 궁금해요!

정말 감사하게도 용기 낸 식당 시리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며, ‘영상에서 용기를 얻어 처음 용기 내봤다’, ‘오늘은 족발에 용기 내봤는데 너무 좋았다’ 등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용기 낸 경험담을 공유해 주셨

습니다. 이때, 제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구나를 깨닫고 보람을 느낍니다.

‘족발에 용기 내봤다’라는 표현이 워트 있네요. 댓글을 보며 뿌듯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냥 뿌듯하기만 했을 것 같지는 않네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계나 기대감 같은 것을 느끼셨나요?

첫 번째 어려움은 제로 웨이스트 접근성이었어요. 제로 웨이스트 가게들은 곳곳에 생기고 있는데, 생활용품을 파는 가게들이 집 주변에 없다는 것이 소비자로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기업 가맹점들이 제로 웨이스트 상점으로서 솔선수범을 보였으면 좋겠고, 제로웨이스트 전문 가게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비주류의 문화라는 점입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인지하는 문제지만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나 혼자 실천한다면 함께했을 때보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용기 낸 식당 콘텐츠를 찍고 일상 속에서 용기 내를 실천하며,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내가 귀찮으니까 그냥 일회용품에 담아 가요’ 등의 반응을 보이는 식당 사장님, 직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환경을 위한 노력이 많은 곳에서 보이면 좋겠지만, 아직 식당이나 다른 생활용품에서 역시 환경 문제는 1순위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죠. 보다 많은 분들이 환경 보호에 함께하고 나서서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효율성’과 ‘편리함’을 위해서는 인간에게 편한 방법인 플라스틱 사용이 낫겠죠. 지구를 위한 것도 좋지만 인간은 늘 편리함을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굳이 ‘귀찮게’, ‘번거롭게’ 용기를 들고 다니고



기껏 생산한 플라스틱을 쓰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할까요?



미래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우리의 생활 범위를 침범하더라도 저는 적어도 현재의 이런 활동을 통해 양심의 가책은 덜 느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미래 세대는 현재 우리 세대를 닮았겠지만 지금 이렇게 환경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가책에서 충분히 벗어날 만큼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금의 수고가 플라스틱 한 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수고로움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야 할 테니까요.

한 편으로는 소비자들만의 움직임으로는 결국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도 있어요. 소비자의 노력보다 기업의 행동변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죠. 기업이나 정부에 대한 강력한 규탄 활동이 효과적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신지 궁금해요.

저도 한 소비자로서 용기 낸 실천을 해오면서 기업 및 정부의 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제가 플라스틱 쓰레기 한 개를 줄일 때, 기업 및 정부는 각각 제품 개선과 제도를 통해서 수 천, 수 만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예컨대, 마트에서 이미 제품이 비닐에 포장되어 있

다면 소비자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이때, 기업이 먼저 날 것 그대로 포장해 갈 수 있는 가판대를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많은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한 번에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 낸 식당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고 싶어요.

용기 내 문화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텀블러 문화도 몇 년에 걸쳐 자리를 잡았습니다. 텀블러를 내거나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부끄러움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비단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용기를 낼 때, 누구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튜버로서 영상 콘텐츠 제작에 힘쓸 것이며, 용기 내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첫 용기는 어렵고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한 번만 용기 내 본다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뿌듯함, 편리함 그리고 환경보호의 기쁨까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용기 낸 대학생1'을 검색하시면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 엄마라는 아이

인터뷰이 아가다 수녀님(자오나학교 교장)

인터뷰어, 정리 김해경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 '흔들리며 피는 꽃' 전문, 도종환 시인

자오나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어느 누군가가 벽에 붙여 놓은 위
의 시가 눈에 들어왔다. 바람과 비에 젖지 않고 꽃이 필 수 없듯이 인생
도 시련과 고통을 견디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까?

몇 년 전 우연히 자오나학교에 대해서 알게 됐다. 자오나학교는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인데 수녀님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했다. 출산
과 양육, 보통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미혼모에게는 홀로 감당하기에 막
막할 텐데. 이런 친구들에게 친정 엄마 역할을 하시는 수녀님은 과연 어
떤 분일지 궁금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얼마 전에 자오나학교 교장 수녀님 연락처
를 아신다는 분이 있어서 수녀님을 만나 뵙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다
행히도 수녀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자오나 학교를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아가다 수녀님.

자오나학교 오는 길을 휴대폰 문자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도를 보고
찾는 것보다 훨씬 쉽게 설명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활자로 된 로드맵

같았어요. (...왼쪽에 박미정 헤어 센스, 오른쪽에 GS25가 보일 때까지 오세요. 박미정 헤어 센스에서 좌회전해서 가파른 아스팔트 길을 계속 올라오세요. 문을 닫은 우리 슈퍼를 지나쳐서 노란색 큰 차양막을 친 2층 주택까지 올라오세요. .../이렇게 자세한 위치 설명은 처음이었음)
자오나학교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있네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오나학교는 키 작은 자캐오가 나무에 올라 새로운 세상을 만났듯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움과 성장을 위한 든든한 나무가 되어 동반하고자 만든 대안학교예요. 2014년 개교했고 숙식과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청소년들이 오나요?

“생명인데 어떡해요”, “걸림돌인데 수술해야지 하는 결정을 차마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와요. 14~24세의 청소년 중에서 임신하여 출산을 앞둔 친구, 아기를 스스로 키우려는 친구, 어려운 가정환경 및 위기 상황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친구들이 입학 대상이에요.

자오나학교가 다른 미혼모 시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자오나 학교 입학은 입양 보내지 않고 양육하는 게 조건이에요. 무엇보다도 다른 점은 미혼모 시설이 아니고 비인가 대안학교여서 학생들은 수급비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 물품, 식비, 간식도 지원받고,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지원도 해주기 때문에 수급비를 차곡차곡 모을 수가 있어요. 이 돈을 모으면 경제적 자립을 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돼요. 게다가 자오나학교 졸업 이후에는 학교 앞에 있는 자오나 하우스(빌라)에서 1년 정도 입주도 가능해요.



자오나학교의 장점이 꽤나 많은데 학생들이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나요?

7명이 정원이고 방도 7개가 있어요. 주로 20대 초반으로 20살, 21살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규율과 타인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이 부담스럽고 공동체 생활을 기피해서인지 현재 학생이 1명 밖에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로하기보다는 수급비 받으면서 편하게 살려는 경향도 있고요. 여기에 오는 학생 과반 이상은 미래나 진로에 대해 계획이 없어요. 부모님이 도와줘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환경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지요. 심지어 학생의 수급비에 욕심을 갖는 부모도 있어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 미혼모인 딸의 수급비에 기대기도 해요.

주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나요? 혹시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도 있었나요?

최대 2년 동안 머물 수 있는데 컴퓨터 자격증(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메이크업, 보육교사(1년 과정), 간호조무사, 전산회계 자격증 취득을 하거나 대학교에 진학한 친구도 있었어요.

수업 시간은 오전 9:30부터 오후 15:30까지이며 수업시간 동안에는 아기를 돌봐주지만 그 후 시간에는 본인이 돌봐야 해요. 현재까지 정식 졸업생은 8명이고, 자오나를 거쳐 간 학생들은 대략 30~40명 있어요.

수녀님은 자오나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했다. 수녀님은 교육 선교 수녀회에 몸담고 계셨다고 한다. 사범대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했고 초등학교 교사 생활도 하셨다. 일본에 선교사로 파견돼서 일본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에 자오나 학교의 부름을 받으셨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도 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특히 여자가 교육을 잘 받아야 가정과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변한다는 교육철학 때문에 귀국을 망설이지 않으셨다고 한다.

기억에 남는 자오나 친구가 있을까요?

자오나를 거쳐 간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무작정 나갈 경우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1회 졸업생이 자신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연락 왔을 때 뿌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많은 미혼모들을 위해 사회가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미혼모라고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엄마들처럼 미혼모들도 친정 엄마찬스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돌보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들잖아요. 미혼모들도 공동육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 사회는 입사할 때 아직도 호구 조사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아직도 가족관계라든가, '왜 혼자 살아요?' 같은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데, 능력, 비전, 가치관, 노력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과거 경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능력 위주로 검증했으면 해요. 성차별적인 질문은 이제 그만하고 미혼모도 일반 여성과 똑같이 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예전보다는 달라졌지만 아직도 편견이 존재해요.



지역사회와 협력이 가능할까요?

마을 소규모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리라 봐요. 아이의 고통을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도와줬으면 해요. 모든 문제를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특히 어정쩡하고 걸림돌 같은 일부 부모도 있어요. 아이를 잘 돌보지도 않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자오나 학교 입학에 동의도 해주지 않는 부모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요.

수녀님은 어디선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자오나 학교에 대한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실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에 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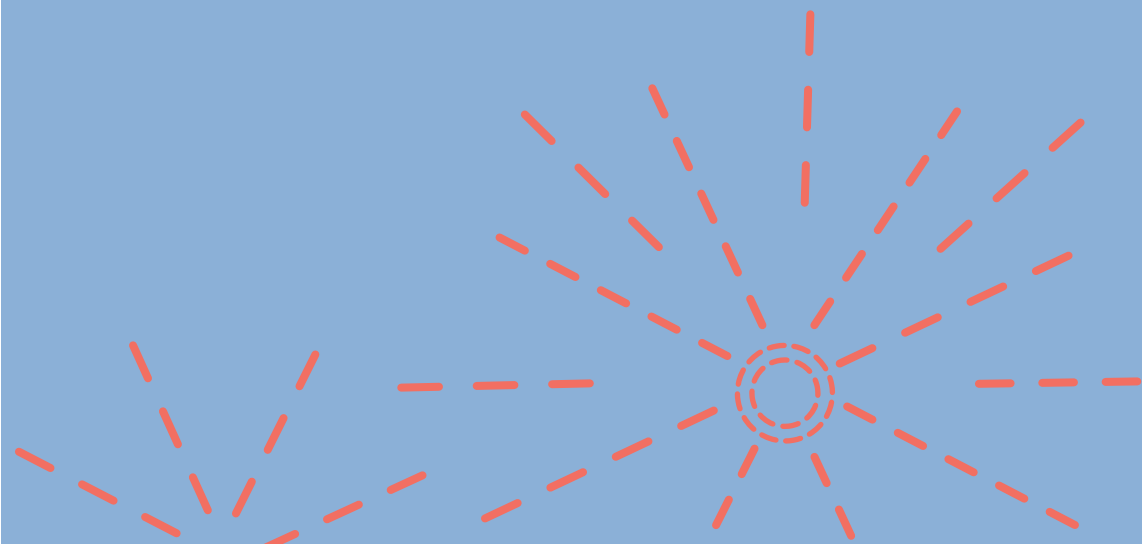
7명이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관련 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문하겠다는 각오를 다지셨다. 새로 자오나 학교에 오게 되는 그 누군가 도종환님의 또 다른 시 '담쟁이'도 벽에 붙여 놓길 기대하면서 수녀님의 노력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 드리고 싶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 '담쟁이' 중에서, 도종환



스삭스삭
마음을
스치다



바
다

이
야
기



이
해
성

바다는 나에게 있어서 그림동화 같다.

책을 펼친 듯한 멋진 풍경.

바닷물에 담근 내 발밑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 안에 작은 극장이 펼쳐진다.

친절하다가도 변덕스럽고 지루하다가도 다정하고 고요한 바다
퇴사 후 나는 한 달간 제주 바다 근처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도시를 벗어나 설레기도 했지만

머무르는 시간들은 설렘의 시간보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서
도시로 돌아온 지금 더 그리운 것 같다.

어릴 적 나의 이름 중 '은혜 혜'자가 '바다 해'자였어도 좋았겠다 싶을
만큼

3월의 탄생석이 아쿠아 마린이어서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던 만큼

나의 별자리가 물고기자리여서 기쁜 만큼

나의 수호신이 포세이돈이라고 별자리 책에서 봤을 때 나는 바다에 빠져도 살 수 있겠다고 믿었던 만큼

나는 바다와 가까운 사람이고 싶었다.

바다라고 해서 모든 바다가 내 마음에 들진 않았다.

월미도 앞바다는 내 맘에 드는 바다는 아니었다.

동해바다 남해바다 제주바다

검푸른 바다보다 바닥이 조금 비치는 바다

안 보이면 무서워서일까

에메랄드빛 바다는 나에게 다정하게 느껴졌다.

바닷속을 들여다본 후, 나의 바다를 보는 눈은 조금 달라졌다.

육지가 뒤집어져 있는 또 다른 세상으로 보였다.

산호는 없는 게 없는 마을
해류는 고속도로
작은 숲도 작은 강도 놀이터도 그곳은 육지와 다를 것이 없었다.
다만 조금 더 고요하고
나의 숨에 집중할 수 있는 세상
바닷속을 들여다본 후 내가 바다를 보는 눈은 멀리서 바라볼 때와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어릴 땐 아쿠아리움만이 가까이서 물속 친구들을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좋아했지만 커가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동물원, 아쿠아리움은 어느새 나에게 미안한 추억이 깃든 곳이 되었다.
나와 동물들이 건강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나는 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 내 숨만큼만 여행하며 길 위에서 만나는 방법을 선택했다.
현재로서 선택한 두 가지 방법 스쿠버다이빙 그리고 프리다이빙
좋아하던 낚시도 이제는 안녕.
오래도록 우리의 바다가 건강하길 바라고 바닷속 여행길에서 내가 지나온 길을 허리춤 한쪽 주머니에 담아 오는 여행자의 삶을 살기로 스스로와 약속했다.
그간 내가 사랑하면서 상처 줬던 일들에 반성의 활동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싶다.
작은 미신들과 사소한 단어만으로도 바다와 연결되고 싶던 나는 이제 조금 성숙한 방법으로 만남을 가질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 나의 한 점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나의 작은 노력이 우리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한 모금의 숨이 되길.

안
녕
?

친
구
야
!



이
연
수

나는 오늘도 어제와 별로 다를 게 없는 하루를 보냈단다. 2021년의 5월은 지금껏 살면서 겪어 본 5월 중에 가장 번덕스러운 날씨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크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단다. 너도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올해도 텃밭 농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너하고 내가 친구가 된 세월이 벌써 40년을 훌쩍 넘어버렸구나. 고등학교 2학년 3월,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참 어수룩하고 순진했었는데, 이렇게 둘 다 나이를 먹고, 어른을 지나서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는구나. 1년에 한 번은 만났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한 지가 2년이 넘어가고 있구나.

보고 싶다.

얼마 전에 우리 엄마 모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하러 다녀왔단다. 너희 부모님도 다 접종하셨지? 장소가 체육관이었거든. 엄청나게 넓은 장소라서 그랬는지 모여 계신 노인들이 더욱더 작아 보이더구나. 앉아서 기다리실 수 있게 펼쳐 놓은 의자에 엄마를 앉게 해드리고 나는 뒤쪽에 서 있었어. 나는 엄마가 지시사항을 놓치실까 봐 엄마의 뒤통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뭐든지 혼자서 잘 해내시던 우리 엄마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확인하시더라. 그 장면이 우리 아이들 유치원 입학식 장면하고 많이 겹치더구나. 그때도 나는 아이의 뒤통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서있었지. 나를 찾는 아이와 눈 맞춤을 해주면서 말이야. 우리 엄마도 나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오셨을 때 그런 마음이셨겠지.

아이들도 그렇지만, 노인들이 그렇게 한곳에 모여 계시니까 진풍경이 벌어지더라. 접종 시간이 오후 1시였는데, 나도 주차 상황이 불안해서 제법 여유 있게 도착했거든.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이 와서 줄을

서고 계시더군요. 입장은 안 시켜 주는데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거지.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12시 40분쯤에 문을 열어 사람들을 들여보내주었어. 근데 어르신들이 놀면서 왜 일을 안 하느냐고 야단치고 재촉하기 시작하셨어. 그분들에게는 점심 식사 후 휴식시간이었을 텐데 말이야. 그렇게 어른들의 성급한 조바심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드디어 업무가 시작되었단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질서를 지켜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 여정은 매끄럽지 못했어. 어떤 할아버지는 본인보다 늦게 온 할머니가 앞서간다고 호통을 치시고, 본인의 차례가 아닌데도 누군가가 움직이면 일단 일어서서 따라가고 보는 분도 많고, 접종 확인서를 어디서 받는 것인지 만나는 직원마다 붙잡고 물어보는 분도 계셨어. 나가실 때 받으시면 된다는 똑같은 대답을 듣고, 또 듣고, 그래도 뭔가가 불만족스러우신 모양이더라. 그분이 엄마 앞쪽이어서 본의 아니게 계속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거든.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나도 지치더라.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저 친구들 집에 가면 그냥 쓰러지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한 번은 줄이 밀려서 한 칸씩 뒤로 물러나야 하는 경우가 생겼거든. 의자에 앉으시도록 되어 있으니깐 하나씩 뒤쪽 의자로 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우리 엄마가 뒤쪽 할머니한테 “하나씩 뒤로 가랍니다.” 하니까 그분이 “어차피 앉았는데 댁이 뒤로 가면 되겠구먼.” 하면서 버티시더라고. 우리 엄마가 그럼시다 하셨을 리가 없잖니? 결국 또 언성이 높아지고 진행요원이 와서 그분을 뒷자리로 모셨지.

주사를 맞고 나면 15분 대기했다가 집에 가셔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먼저 가시려는 분들도 참 많았단다. 우리 엄마도 그중 한 분이셨거든. 이럴 줄 알았는지 주사 맞을 때 아예 시간을 스티커에 써서

가슴에 붙여 드렸더구나. 스티커 덕분에 출입구에서 나가는 걸 제지당 하셨단다. 나는 좀 창피해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에게 툭툭댔어. 대체 뭐가 그리들 급하신 건지. 왜 그토록 본인들이 손해 보는 것이 있을까 봐 전전긍긍하시는 건지.

우리는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고 배우고 컸지. 그렇게 살았고. 근데,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인이면 누구에게나 호통치고 나를 공경하라고 요구하는 비뚤어진 권력이 되어 버린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단다. 물론, 어른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건 아주 좋은 사회적 분위기지. 하지만 나이가 더 이상 권력이 되어 주진 않을 거야. 그래서 안 되고.

나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일들을 겪어서 다른 사람의 숨겨진 사정을 짐작해 주고, 어루만져 주는 마음이 커지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 그런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지는 않더구나. 너는 어때니? 혹시 나만 그런 걸까?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점점 소가지가 땀병이 할머니처럼 되어서, 참아 줄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날 뿐이더라구. 고집만 세지는 것 같고. 품이 넓고 인자한 노인이 되는 건 정말 어렵거나 어쩌면 불가능한 것 같더라.

이제 우리는 젊은이보다 노인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잖니. 베이비붐 세대들이 70을 넘어서면 더욱더 그렇게 될 거야. 점점 키도 작아지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겠지. 아픈 곳은 자꾸만 늘어나고 말이야. 너 혹시 햄버거 집에 있는 자동주문 시스템을 이용해 봤니? 나는 햄버거를 먹을 일이 없어서 아직 안 해봤는데, 그거 어려운데 보더라. 주문을 포기하고 집에 와서 올었다는 우리 또래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읽었단다.

참!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겨울에 종로에서 음료를 주문할 일이 있었는데, 정말 낯선 음료의 이름에 당황이 되더라구. 머릿속이 하얘지

면서 그냥 가장 많이 나가는 걸 주문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받아 보니 얼음 든 음료가 나온 거야. 나는 여름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못 먹는데... 나는 아이스를 시키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따로 얘기하지 않으면 아이스를 준다는구나. 대개의 손님들이 아이스를 주문해서 그리되었으면서 주인이 죄송하다고 사과하긴 했는데, 참 씹쓸했었어. 나는 뜨거운 음료가 기본이고 차가운 음료가 선택 옵션인데, 그곳은 반대더구나. 그때 나는 빗자루로 쓸어서 한쪽으로 치워진 빈 과자 포장지가 된 기분이 좀 들었던 것 같아.

예전엔 우리가 종로를 내 집골목처럼 누비고 다녔었잖니... 이렇게 옆으로 쓸려버리기 싫어서 노인이 되면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해지는 걸까? 아니면 많이 먹은 나이라도 내세워서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지는 걸까?

지금의 노인은 인류 역사상 젊은이에게 가르칠 것보다 배울 게 훨씬 많은 최초의 노인 세대래. 이전에는 노인들의 축적된 경험이나 지식이 젊은이들에게 전수되는 세상이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잖니? 아직은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지만 (이것도 나의 착각일지 모르지), 어느 날 이 끈을 놓쳐 버리면 결국 나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노인이 되어 있겠지.

노인이 된 나의 삶이 어떨지, 얼마나 긴 시간을 노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감히 짐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지만 우리 최소한 아무한테나 너는 어미 애비도 없냐고 삿대질 해대는 노인으로 늙지는 말자꾸나. 그리고 잘 기다리는 노인이 되도록 하자. 왜냐면 노인은 끊임없이 배제되고, 무엇이든 오래오래 기다려야 하고 그럴 테니까 말이야.

아카데미에서 수상한 윤여정 배우의 인터뷰에 인상적인 말이 있더라. 왜 영화 미나리에 출연하기로 했는가?라는 질문에-영화 미나리는 저예산 영화여서 촬영 일정이 고생스러울 것임이 이미 예견되는 영화였다는구나. 실제로 윤여정 배우가 밥을 직접 해먹어가며 촬영했다고 하더라고. “한국 영화판에서는 누구도 나를 연출하려 하지 않을 테고 거기 안주하면 그저 대접만 받는 괴물이 될 것 같아서” 대략 이런 내용의 답변을 했던 것 같아. 맞아, 아무도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하고 대접만 해주면, 사람은 누구나 오만한 괴물이 될 거야. 그게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 거야. 서서히 나도 모르게 나쁜 버릇이 들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지. 그 나이에 그런 고생길로 뛰어드는 용기와 열린 마음을 나도 갖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어찌면 내 몸과 마음이 편한 방향의 선택을 하게 될 것만 같구나. 이미 나쁜 버르장머리가 들어버리기 시작했는지도 몰라...

그 날 접종하러 가서 나는 아무 것도 안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다 왔는데도 왜 그렇게 몸이 고되던지. 오후 시간에 커피를 안 마시지만 그날은 한 잔 마셨단다. 최근 몇 년 동안 잘 죽는 일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잘 늙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한 일인 것 같구나.

우리 서로 잘 늙어가다가 코로나가 극복되면 반갑게 만나자꾸나.



종은

이
별



박
미
선

작년까지만 해도, 3월 중순 무렵이면 집 앞 화단에 있던 매화나무는 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꽃이 만개하면 향에 취할 정도로 황홀했다. 나는 이것을 초봄의 향기로 기억한다. 날씨는 아직 춥고, 여전히 겨울인 것 같지만 봄은 이렇게 오는구나. 그런 계절이면 웬만한 힘든 일이 있어도, 가로등 불빛에 뒤섞인 매화가 큰 위로가 되었다. 마중 나온 나무가 나에게 주는 선물 같아서.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다가 오늘도 수고했어, 이제 이 꽃 좀 보며 쉬어, 하는 것 같아서.

매화는 풀하나 없는 이른 봄에 피기 시작해 연두빛 잎사귀로 주변이 온통 푸릇해지는 계절까지 피어있었다. 창밖으로 내다보면 매화나무가 꽃을 가득 안고 서 있었으며, 봄바람이 불면 매화 향기가 집안 곳곳으로 스며들어왔다.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쩌면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다. 이른 봄 뜻밖의 매화꽃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그 향기가 선물처럼 나에게 전해지는 것이라고.

코로나19로 더 힘들었던 작년 봄에 그 매화는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답게 피었다. 별일 없으면 집안에만 주로 머물던 시기였기에, 잠시 동안 창문을 열고 매화를 보거나 매화향을 맡는 건 재밌는 소풍 같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작년 매화가 막 지고 있던 어느 날 늘 보이던 매화나무가 없어졌다. 다시 찾아봐도 없다. 꽃이 떨어지고 푸른 잎사귀가 나와야 할 때인데,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나무가 갑자기 어디로 간 거지?

그리고 보니, 공원에 있던 큰 은행나무 가지도 짙막하게 잘려 있었다. 가끔씩 봄이면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면서 올해는 담 위에 있던 매화나무도 똑 잘라버렸다는 거다. 늘 거기 있을 것만 같았던 존재와의 뜻밖의 이별에 당황스러울 새도 없이 멍해졌다. 내가 심은 것도, 원래 내 것도 아닌데 뭐가 뻗긴 것 같은 느낌이었다.



며칠 뒤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매화나무를 벤 자리에 더 크고 앙상한 매화나무를 두 그루나 심고 가셨다. 하지만 화려하게 피는 벚꽃, 철쭉, 장미를 지나 분꽃, 국화가 피고 지는 동안 그 나무에서는 잎도 한 장 나지 않았다. 이미 주변은 초록이었고, 매화 잎사귀 말고도 볼 꽃들은 많았기에 앙상한 매화나무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 다음 해 봄엔 매화가 피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긴 했다.

하지만 올해 3월이 다 가도록 매화는 피지 않았다. 이 나무는 한 번도 생명을 가진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또다시 4월이 지나도록 잎사귀도 나지 않았다. 봄이 오는 건지 왔다가 지나간 건지 사망에서 피고 지는 벚꽃을 보고 그제야 실감이 났다.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고 있으면 세월이 멈추고 평생 겨울이어야 할 것 같았다.

이제부터 겨울이 지나고 3월이 돼도 매화 향기가 집안으로 들어 오진 않을 거다. 나는 그 사실을 아주 천천히 받아들였다. 사실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이 집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집이 오래되어 더 이상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어느 시기에는 어떤 이유로든 초봄의 매화나무와는 이별해야 할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헤어지든 3월이 매화 향기는 지금처럼 그리워지겠지.

그리고 보면 모든 존재들에게는, 언젠가는 아름다웠고, 언젠가는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행복했으며, 영원히 함께일 것 같은 시기를 지나고 나면, 헤어져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면 같은 계절이 찾아오거나, 같은 장소를 지날 때 추억으로 남은 그 빛과 향기가 생각나고, 그리워지기도 할 것이다.

가끔은, 영원히 소유하거나 함께 있는 건 힘들더라도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기억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꽤 괜찮았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같이 있는 시간을 충분히 후회 없이 즐기는 게 오래 생각할수록 행복해질 기억을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인듯하다. 한때의 매화 향기처럼 불어오는 바람도, 동네를 산책하는 것도, 맛있는 요리도, 새로운 지식도, 귀여운 길고양이도, 그리고 내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과도.

집안으로 스며들던 매화 향기를 더 이상 보지 못해 생긴 서운한 마음은 해가 지날수록 점차 희미해져 갈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로 그 자리가 채워지기도 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하지만 사는 내내 그때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던 예쁜 매화를 문득 떠올려도 보고 미소 짓게 될 것이다.

집으로
떠나는
나의
시간
이야기



정
다
운

하재영은 2006년에 단편소설 『달팽이들』로 데뷔해서 소설집 『달팽이들』과 장편소설 『스캔들』을 펴냈다. 동물구호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쓴 논픽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 책은 한국의 개 산업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쓴 르포르타주로 철학적이고 지적이면서도 강건한 글을 담고 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신혼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이 과정을 블로그에 연재했는데 이를 눈여겨 본 편집자의 권유로 『친애하는 나의 집에게』를 집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집에 관한 취향이나 기호에 관한 글을 쓰려 했으나 서사를 풀어가다 보니 삶의 배경으로써 집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온 한 여성의 개인적, 사회적 시절 이야기를 담게 되었다고 한다. 책의 제목에 등장하는 ‘친애하는’이란 말 때문에 서간문의 형식이 아닐까 짐작하는 독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나온 행복했던 집과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집에 관한 양가감정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언어를 찾으려 고심하다 이 단어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가 유년기를 보냈던 ‘북성로의 집’과 ‘명문빌라 시절’은 유복하고, 북적였던 대가족이 함께 했던 추억을 소환한다. 그러면서도 어린 소녀 앞에 떨어진 “너 어느 집에 살아?”라는 질문 속에 숨겨진 사회적 함의를 놓치지 않는다. 이 물음에는 ‘너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어디쯤이니? 너를 ‘우리’ 안에 포함시켜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바로 네가 어디 사느냐에 달려있지’와 같은 차별과 배척의 잣대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전한다. 아버지의 부도로 집안의 경제적 부침을 겪고 서울에 상경해 정착해 가던 청장년 시기에 그는 서울의 번두리와 난곡 등 재개발 지역 인근을 맴돈다. 열악한 주거지마저 위협받고 있는 저소득층 이웃들을 볼 때면 자신도 불안에 떨고, ‘나는 이 주변부에서 과연 이 사회의 중심부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한다. 집다운 집을 갖게 되었

다고 느끼는 행신동과 결혼 후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구기동 집에 이르기까지 그 공간에 머물던 시절 작가 내면에 깊이 자리 잡았던 고민과 질문들을 털어놓는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월세 살던 행신동 집에서의 일화다. 남의 집에 왜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냐는 전세입자의 핀잔에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사는 동안은 내 집이니까요.” 마치 이 한 마디는 서류상의 소유를 뛰어넘어 내가 점유하고 거주하는 이 공간은 내 책임이며 내 재량 안에 있다는 엄중한 선언 같아 보였다. ‘내가 바꾼 공간이 이곳에서 보낼 나의 시간을 바꾸리라’ 기대했다는 고백을 보면 이것이 작가가 삶을 대하는 방식이요, 태도가 아닐까.

결혼 후 저자는 집 안에서 과연 자신의 자리는 어디인지, 더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여러 개의 방이 있었던 부유했던 명문빌라 시절에도 집에서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은 어머니였음에도 어머니는 서재를 가지지 못했음을 떠올린다. 공간이 없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미와도 같다. 그녀는 우리에게 집 안에서 자신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인 ‘자신만의 방’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다. 여성들은 주부가 되면서 직업을 놓고 사회에서 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은데 사적 공간인 집에서도 자신들의 공간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쓰는 일을 할 때 나는 누구에 의해 정의되거나 규정되지 않는 순수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공간을 마련하고, 가꾸고, 지켜나가고 있다고.

청장년 세대부터 노년 세대까지 함께 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에 참여했었다. 많은 분들이 분명 작가가 살아온 집과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마치 내가 살아온 집과 그 시절을 읽은 것 같은 신비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필자 역시 이 책을 읽는 동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내가 살았던 집과 그 시절 가족들을 만나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지나온 삶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또 책을 덮으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찬찬히 살펴보며 그게 내가 삶을 대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작가는 집을 재산 증식이나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오랜 틀을 깨고, 삶을 빚어내는 배경과 터전으로써 우리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돌아보고 이를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해 사회적인 함의까지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또 자신의 시절을 규명하기 위해 적합한 단어와 문장을 부단히 고르고, 다듬어 써준 덕분에 두루뭉술하고 모호하게 넘어갔던 과거의 한 시절을 다시 이해하고 해석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아쉬운 점은 이 폭넓은 서사의 말미가 바라보면 부러워할 만큼 개성 있는 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버려, 앞에서 펼친 사회적인 고민에 대한 함의도 기운을 잃고 그 설득력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온 집과 더불어 시공간에 관해 관한 삶의 서사를 나누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쓸
쓸
함
에

대
해



심
미
예

동네 골목길을 어슬렁거리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 흔하지 않다. 텅 빈 골목을 혼자 걷는 경우가 다반사다. 어른도 아이도 없다. 아침이면 우르르 나갔다가 해가 지면 하나 둘 돌아와서 그런가.

골목을 두리번거리며 걷다 보니 할머니가 말을 건넨다.

"어디 찾아요?"

"아니요. 그냥 골목길 구경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랬다. 카메라를 들고 골목길을 서성이면 개발 관련 사람인 줄 알고 예민해한다고 했다. 할머니는 재개발 조사하러 다니느냐고 묻는다. 아니라고 했다. 동네를 좋아해서 쓸데없이 돌아다니며 마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할머니는 왜 쓸데없는 일이나며 좋은 일 하고 있다고 추켜 세워준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 눈빛은 간간해 보였다. 그럼에도 어르신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내 안의 본능이 있다. 늙은 엄마를 두었던 덕에, 병석에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 생각에 말을 건넨다.

"여기 오래 사셨어요?"

"내가 집이(나를 지칭하는 말) 나이 때 왔으니까 오래 살았네."

"친구분들은요?"

"여긴 늙은이들이 없어. 나 혼자야. 꽃들이 친구지."

오랜 골목은 오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 거라 여겼다. 젊은이들이 많단다. 외국인들도 있단다. 어~~ 그리고 보니 아이들 서너 명이 뛰어논다. 아파트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세대, 빌라도 만만치 않으니 자꾸 밀리고 밀려 다세대 주택에 등지를 튼다.

"서울 밥 먹고살겠다고 그러는 거 보면 안 됐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에서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 지하 단칸방이라도 얻어 서울로 와야 한다. 단칸방도 호사일 수 있다. 겨우 몸통

이 하나 뵈고 누울 수 있는 고시원이 전부일 수 있다.

"나도 먹고살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했어."

"무슨 일을 하셨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나요?"

"청소했지. 배운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청소밖에 없었어."

이제 얼굴을 뵈지 30분이 됐을까? 할머니는 당신의 속내를 꺼내 놓으신다.

"첫 차 타고 나가면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도 그때는 고생이라고 생각 안 했어. 자식들 먹이고 공부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리가 아파서 꿈쩍을 못하니 서글퍼."

"다리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도 개운산 수영장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잖아. 지금은 아파서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해. 미용실 가서 놓고 오는 게 다고. 주사 안 맞으면 그것도 못해."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요?"

"팔 하고 다섯이야."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봐요."

"난 다음 생이 있다면 절대 결혼은 하지 않을 거야."

"왜요?"

"결혼은 뭐 하려 해. 다시 청소를 하더라도 나 혼자 먹고살아야지."

"외롭잖아요."

"외롭긴 뭐가 외로워. 지금도 혼자 사는데 외롭진 않아. 요즘 젊은 사람들도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 많잖아."

그렇긴 하다. 내 딸만 해도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아직 이른 나이이긴 하지만 굳이 결혼하라고 성화를 하지 않을 것 같다. 할

머니는 할머니 삶이 없었던 것을 안타까워하는 듯했다. 배우지 못하고, 먹고 사느라 바빠 누리지 못한 삶이, 늙고 병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서글픈 듯했다.

막내딸 자랑에 그런 할머니 마음이 들어 있다.

"고것은 참 유별났어. 국민학교 입학해서는 저 혼자 갈 수 있다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따라오는 게 창피하다고.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된 때는 차를 딱 사 가지고 오고, 불링대회도 나가고, 00도 배우고, 00도 배우고 지금은 아파트에서 애들 과외 하면서 잘 살아."

차를 사서 운전을 하고, 배우고 싶은 것 마음껏 배우면서 자유롭게 사는 딸이 내심 좋아 보였겠지. 왜 아니겠는가? 젊음은 되찾을 수 없고, 몸이라도 건강하면 꿈꾸었던 것들 해 보면서 살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아픔이라는 고통에는 경중이 따로 없지만 견을 수 없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멀리 못 나가니 대문 앞에 앉아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다. 그래도 다행이다. 골목 사람들이 참 다정하다.

"할머니 사랑해요."하며 손 하트를 날려주는 앞집 젊은이가 있고,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가는 엄마도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하며 인사를 건네고, 환경미화원은 할머니 말에 일일이 대꾸해 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나이가 들어 서러운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 쓸쓸해지는 것이구나. 열심히 산 인생은 있지만 나를 위한 삶은 아니었으니까.



개
파
는
날



함
동
갑

내 기억에 우리 집에서 낳아서 성견(成犬)으로 자란 유일한 수컷이 아마도 복석이다.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그 아비가 되는 녀석의 집에 새끼 한 마리를 주는 풍습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암컷을 키워야 대를 이을 수 있고, 다산(多産)의 효과로 수입도 많다는 생각에 엄마는 항상 암컷을 키웠다. 그래서 우리 집은 5일장에 가서 사 오거나 남의 집에서 개를 사는 일이 거의 없었다.

어느 해, 복석이 어미가 다섯 형제를 낳고 죽자 젖이 없는 터이고, 우유는 상상도 못하는 시절이라 엄마가 만든 죽을 먹으며 며칠을 견디다가 불쌍하게도 네 형제는 차례로 죽고 구사일생으로 복석이란 살아 남았다. 그때 어린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 당시는 반려견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개를 방에 들여놓지 않았다 - 죽다 살아난 복석을 안고 잠을 잘 정도였다. 그런 정성 탓인지 복석이는 아직 다리에 힘이 붙지 않은 아기 때에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아장아장 걸어와 품에 안겼다. 녀석은 커가면서 더 나를 따랐다. 눈발을 걷는 내 발걸음 소리도 멀리서 알아차리고 달려와 몇 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좋아했다.

나한테는 아빠도 못 말리는 고집이 있었다. 내가 보는 데서 개를 팔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것은 당연했고, 며칠이고 밥을 안 먹기도 했고, 심지어 열나고 앓아누울 때도 있었다. 오리나 돼지도 키웠지만 유독 개에게만은 그랬었다. 그래서 엄마가 궁리한 끝에 내가 학교에 간 사이에 팔아넘기려고 개 장수와 거래 시간을 낮으로 정했다.

아마도 이미 팔린 것에 대한 이별의 아픔이 반감되거나 미련이 포기의 형태로 다소 빨리 돌아서리라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어느 토요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돌아오던 나는 개 장수에게 끌려가는 복석을 발견했다. 그날이 아빠가 임향하는 날이라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엄마가 토요일인 것을 깜빡했던 것이었다.

개 장수의 트럭에는 철사로 엮은 개장에 이미 팔린 개들이 꼬리를 내린 채 겁에 질려 짓어대고 있었다. 나는 이미 충혈된 눈으로 복석이를 보고 있었고, 개 장수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던 복석이는 나를 보자 금세 꼬리를 치며 뛰어와서 얼굴을 핥고 난리 법석을 떨었다.

엄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다가 어떤 위기감이 든 듯 복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 마디 했다.

“복석아 부잣집 가서 쌀밥 먹고 잘 살아라이?”

쌀은 부잣집의 상징이었다. 엄마의 말은 보리밥에 음식 찌꺼기나 먹는 우리 집은 잊고 부자 주인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었다. 엄마의 한 마디는 효과가 컸다.

벗겨봤자 한 줌도 안 되는 고구마 감자 껍질을 받아먹으려고 꼬리를 치던 복석이, 목이 말라 시궁창에 고인 물을 먹던 복석이, 가족이 먹고 남은 음식이 없어서 굶은 배가 훌쩍하게 들어갔던 복석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허겁지겁 먹다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 객객대던 복석이, 겨울날 툇마루 밑에 들어가 부들부들 떨며 겨울잠을 청하던 복석이, 아빠가 입항하면서 사 온 닭의 백숙을 먹고 생긴 뼈다귀를 주면 실울만큼 남은 살점을 뜯다가 뼈를 며칠 동안 씹어 먹던 복석이.

우리 동네의 모든 개들의 대부분 생활상이 그랬는데 그 순간 나에게도 복석이가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진 것이었다. 그런 복석이의 모습이 순식간에 뇌리를 스치며 상처와 후회와 희망이 뒤섞였다. 그때 딱 한 듯 보고 있던 개 장수의 한 마디가 내 어린 마음에 햇빛같이 찬란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아주머니. 요놈은 면장님이 맞춰 낚당께”

개 장수는 읍내 면장이 복석이를 자신에게 사다 주라고 부탁했



다는 말을 나 들으라는 듯 엄마의 말에 맞장구를 친 것이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면장 집이라면 양옥집에 날마다 하얀 쌀밥에 고기반찬, 마당에 포근한 복석이의 집이 떠올랐다.

그 말을 듣자 복석이를 안은 팔에 힘이 풀렸다. 엄마도 어지간히 가슴이 먹먹했는지 며칠 뒤 5일장에 나를 데리고 가서 암컷 강아지 두 마리를 고르라고 했다. 지금은 의무교육이 되어 등록금이 없지만 그때는 중학교 등록금이 있었다. 엄마에게는 복석이를 판돈이 중학생이었던 형의 한 학기 등록금이었다.

미 오
미 래
야, 오
내 래

곁 있어
에 줘
!



셀
레
나

오심을 넘기면서 나이 때문인지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새벽에 깨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지금도 새벽 4시에 깨어 6시가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깨게 되면서 고양이들이 새벽 시간에 가장 활발하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고양이는 야행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고양이 활동량이 많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 고양이 미미는 새벽에 일어나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옵니다. 얼마 전에 콩콩이(고양이) 언니까지 먼저 보내고 혼자자 된 미미는 외로워서인지 새벽마다 부쩍 소리를 크게 지르며 집 안을 돌아다닙니다.

오늘은 비슷한 시간에 같이 깨서 미미는 내 곁에 붙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나를 유독 좋아하긴 했지만 최근에 더욱 내 옆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책상에서 책을 읽는 것도 소파에서 TV를 보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 있는 곳으로 오라고 올면서 나를 부릅니다. 혼자라 쓸쓸해서인지 아니면 그동안 분산되어 받던 사랑을 혼자서 독차지하고 싶은 건지, 미미의 마음도 모르는 나는 나쁜 엄마입니다.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마음도 잘 모르는 것을 보면 사람과 고양이가 이렇게 한 집에서 사는 게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우리 냥이들을 집에 들인 일임은 분명합니다. 나쁜 엄마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저 세상으로 보낸 4마리 우리 아기들이 너무 보고 싶어집니다.

우리 아기들을 불러봅니다. 콩콩이, 미미, 플린이, 호사마, 뽀송이, 이렇게 우리 집에는 5마리의 냥이와 냥이들의 집사인 엄마, 아빠가 살았습니다. 콩콩이, 미미, 플린이는 아기였을 때 집에 왔고 호사마와 뽀송이는 친구가 결혼하면서 사정상 우리 집에 오게 되어 이미 성묘인 상태였습니다. 콩콩이와 미미는 한 달 차이로 와서 14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 집 대장이었던 콩콩이는 대장답게 나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편이었고 엄마처럼 나를 따르기보다는 놀 친구에 가까웠습니다. 콩콩이와는 하루에 한두 번씩 놀이를 했습니다. 콩콩이는 내가 자기를 쫓아가면 막 도망가다 집 안에 있는 박스에 숨는 놀이를 좋아했습니다. 바닥에 누우면 발로 빙글빙글 돌려주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콩이가 놀았던 박스들은 콩이가 발톱으로 긁어놓은 그 상태 그대로 아직 있었던 장소에 놓여있습니다. 박스를 치우면 집안이 깔끔해지겠지만 나도 콩콩이 아파도 박스들을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콩이하고의 추억을 생각하다 보면 나머지 우리 아기들의 모습과 같이 지낸 시간들이 오버랩되면서 눈물, 콧물을 닦아내느라 휴지만 쌓

이곤 합니다. 아기들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저절로 나오네요. 플린이는 막내였는데 고양이별로 제일 먼저 떠났어요. 막내여서인지 이 엄마가 엄청 예뻐했고 같이 장난도 많이 치면서 놀았어요. 플린이는 장갑 하나를 물고 늘 심각하게 씨름을 하곤 했어요. 자기가 물어서 어디다 치웠는데 계속해서 다시 나타나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장갑하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재밌어만 했지요.

호사마는 삼 고양이였는데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봐도 예쁘다고 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날씬한 몸매에 덩치도 작아서 얼마나 빠르고 부지런한지 몰라요. 호사마는 정말 귀여웠어요. 특히 고양이가 존경과 신뢰를 보낼 때 한다는 행동인 자신의 몸을 내 다리에 비비는 일이 많아서 걸어 다닐 때마다 조심해야 했어요. 호사마는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여러 집에 잠깐씩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벽지를 뜯는 습성이 있어서 그다지 환대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벽지를 뜯던 더 심한 일을 하던 다 받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뽕송이는 호사마와 같이 살다 온 페르시안 고양이였어요. 먹는 것을 제일 좋아했던 뽕송이는 간식 주려는 김새를 차리자마자 가뿐가쁜 발걸음으로 경쾌하게 뛰어오던 모습에 간식 주는 사람을 신나게 만들곤 했지요. 힘은 제일 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집 대장 콩콩이한테 당해주는 넓은 마음씨를 가졌음에도 호사마가 당하고 있을 때면 화가 나서 콩콩이한테 달려들곤 했어요. 콩콩이는 힘으로는 플린이나 뽕송이한테 당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대장 자리를 지키고 사느라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콩콩이는 최고 언니로서 강한 모습만 보여야 하니 엄마, 아빠한테 더 사랑해달라고 하질 못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콩이를 더 예뻐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마지막 갈 때도 죽음을 받아들이며 위엄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숭고함마저 느끼게 해준 콩이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좀 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지만 우리 아기들과 항상 같이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마지막 모습들이 기억에 선명해요. 뽀송이가 많이 아프다 가서 그게 제일 맘이 아파요. 엄마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뽀송이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닌지 후회도 커요. 아기들 보낼 때마다 항상 후회가 남아서 삶과 죽음의 문제는 내 손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해도 좀 더 잘해주고 미리미리 아프지 않게 챙기고 보살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미미가 좀 전에도 방문 앞에서 큰소리로 나를 부르는 소리에 힘 들어도 가서 쓰다듬고 만져주고 재우고 왔어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힘들고 귀찮을 때도 있지만 아직 함께 있을 수 있는 미미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미미를 만지고 바라보고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헤어진 상처를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새벽에 깨어서 몽롱하고 피곤하네요. 플린리와 호사마가 4월에 무지개다리를 건넜어요. 그때마다 겨울을 이기고 새로 태어나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조금 더 같이 누리고 가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이렇게 좋은 4월에 이제 나와 미미와 미미 아빠 이렇게만 남았네요. 미미하고는 찬란한 봄을 계속해서 같이 맞이하고 싶은 소망을 빌어봅니다. 미미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줘!

눈
을

뜨
니

아
흔
살
이

되
었
다



권
남
옥

아흔 살이다. 눈을 떠보니 프란츠 카프카, 「변신」의 그레고르처럼 벌레가 된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아흔 살이다.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흔 살이 되어버렸다. 동갑내기 남편도 아흔 살이다. 그는 30대부터 흰머리가 났고, 몸도 나이 든 티가 났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40대에도 흰머리칼이 없었고, 오히려 달리기를 시작했다. 내 40대는 다른 이의 20대와 같았다. 40대에 시작한 달리기와 본격적인 글쓰기, 40대에 읽은 토지와 40대의 학위까지. 아, 여느 20대와 같은 연애는 없었구나. 40대의 어느 따뜻한 날, 첫째 아이를 데리고 커피숍에 다니면서 군중 속에서 혼자가 되는 시간, 사람 사이에 있지만 내 시간을 보내는 법을 알려줬다. 오늘 같은 날에, 뜨거운 햇볕에 땀을 흘리는 아들을 데리고 달콤한 음료를 파는 카페에 갔다. 머리를 맞대고 시간을 공유했다.

젊을 때는 90의 나이가 막연했다. 90세까지 내가 살아있으려나? 내가 90까지 살기는 할 것인가? 80, 70, 60은?? 아흔 살은 막막하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뜨니, 그레고르처럼 벌레가 된 것은 아니지만, 90 살이 되었다. 나도 90까지 살 수 있구나. 40대의 어느 날, <어느 날 눈을 뜨니 아흔 살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다. 아흔은 내 연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20대 때는 40대에 이질감을 느끼고 그들의 삶을 겨우 가늠했다. 평화와 여유로움은 60대의 행복이려니 했다. 내가 간신히 이해하는 노년의 모습은 70대 전후의 부모님의 모습이었다. 도대체 아흔은 어떤 나이일까?

40대의 나는 젊은이처럼 꿈을 꾸며 달렸는데, 아흔이 되니, 세상도 바뀌었다. 평균 수명이 150세 시대다. 아흔 살이 되어도 아직 반평생이 남았다. 40대의 나는 여전히, 꽃을 찾는 나비처럼 꿈을 찾아 날갯짓을 했는데, 90의 나는 꿈길에 날갯짓을 한다. 잠을 자며 꿈꾸듯, 나이 듦이 꿈길이다. 아흔이 되니 몸의 감옥에 갇혔을망정 마음의 감옥이나



정신의 감옥 따위는 없다. 왜 40대의 나는 마음과 정신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 무엇에 매여 있었을까? 건강의 옷을 입었을 때는 무엇이 감옥이었을까? 생업을 위한 직장? 집안 일과 육아와 집안 대소사? 다 지나고 나니, 표현하고 사랑하고 걷고 만나고 웃고 즐기던 시간이 가장 중요했을까?

오늘 눈을 떴을 때, 아흔 살의 나를 만났다. 아흔 살의 나이가 두렵지는 않다. 나의 20대는 아흔 살과 같았고, 나의 40대는 20대와 같았다. 그리고 오늘, 아흔 살이 된 나는 40대와 같다. 오늘도 글을 발행한다. 나 같은 늙은이가 쓴 글을 보고 공감을 느끼는 20대가 있으니, 나는 오늘도 글을 쓴다. 40대의 어느 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었다. 막연하게 품었던 자신감과 달리, 공부가 엄청 쉽지도, 월등하지도 못했지만, 배움은 아흔 살의 내가 글을 가래떡처럼 계속 뽑아낼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 젊을 때는 가리고 골라서 글을 썼는데, 이제는 무의식을 따라가며 글을 쓴다. 아흔쯤 되고 보니, 스스로 검열하던 검열관이 쿨쿨 졸고 있다. 산 날 보다 죽을 날이 가까운 아흔, 두려움보다 큰 것은 진실에



대한 갈망이다.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거짓만 아니라면 드러내지 못할 것도 없다. 그러니 나는 자유로운 아흔이다.

다시 40대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이미 겪은 40대를 또 겪고 싶은 생각은 없다. 두 번, 세 번 겪어도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마흔이 되어도 별로 좋지도 싫지도 않을 것 같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니 아흔 살이 되었고, 아흔 살의 나는 지금 이대로 좋다. 마흔의 내가 스무 살과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아흔 살의 나는 마흔의 나이로 바꾸고 싶지 않다. 오늘은 내 가족을 꼭 안아주리라. 너는 너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스물이든 아흔이든 나는 나로 존재하듯이, 너는 너의 존재로 충분하다.’

하루를 자고 눈을 떴더니, 또 아흔 살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처럼 살고 있다. 아흔은 바로 지금, 내 안에 있다.

걷
기

운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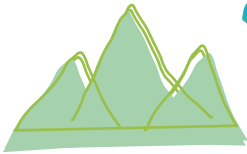


김
은
순

코로나로 인하여 스포츠센터에서 해오던 요가를 1년 넘게 하지 못하고, 그 밖에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코로나 이후 나의 몸무게는 5~6킬로그램이 늘어났다. 늘 마음속에서는 운동하라는 신호를 보내왔지만, 귀찮고 힘들고 땀나는 게 싫다는 이유로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날마다 아니지만 시간이 허락하면 저녁에 집 앞 복서를 꿈의 숲을 걷는 남편을 따라 나 역시 가끔은 걷기도 했다. 그렇게 가끔 걷는 운동으로는 몸무게를 다시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늘어난 몸무게에, 나의 몸은 어느덧 익숙해져 버렸다.

무거워지는 몸에, 더욱 내 마음은 초라해지면서도 그냥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작아지는 옷들에게만 불만을 토로하며 억지로 몸을 쭉서 넣거나 편안한 옷을 찾기에 하루하루가 부족할 뿐이었다. 머지않아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요가를 다니지 하는 마음과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가 내 발목을 꼭~ 부여잡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자꾸 황폐해지고, 움직임도 둔해지고 실수도 잦아지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마음은 자꾸만 가라앉던 지난 4월의 어느 날... (그 전날도 저녁상을 차리다가 식탁에서 실수로 음식을 엮고 컵이 떨어져 깨져버려서 부엌 바닥이 음식과 유리조각으로 뒤섞인 광경을 바라보며 어떻게 치워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되어버렸었다. 낡은 수건으로 바닥을 닦수습하는데, 데우고 있던 인덕션 위의 음식이 다 졸아서 설상가상으로 다 타버리는 상황까지...)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자고 있었냐며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묻는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며 냇두리를 하는데... 친구가 하는 충고는 건기였다. 하루에 적어도 만보 씩 열심히 걸어보란다! 걷기를 하면 힘들고 땀나서 싫다고 변명을 하는 나에게 친구는 한마디를 더 한다. 안 걸으면 죽는다 생각하며 걸어보라고~! 갱년기도 올 텐데 건강해야 하지 않겠냐



며 죽기 살기로 걸어보라고...! 자기를 믿고 걸어보라고...!! 자신도 작년 10월부터 걷기 시작해서 추운 겨울에는 못 걸었지만 봄이 되면서 다시 걷고 있고 그 덕분에 7킬로그램이나 감량이 되었다고.... 이런 친구의 이야기가, 감정의 바닥을 치고 있던 내 마음을 꼭~ 눌러 다시 튕겨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날 딸아이 피아노 학원을 핑계 삼아 데려다주며 20분 정도를 걷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나는 걷기를 시작했다. 혼자 걷는 일이 어색하고 아침이어도 숲길은 왠지 무서워서 딸아이 친구 엄마와 같이 걷기를 제안하여 나의 걷기는 시작되었다.

아침마다 딸아이 등교와 함께 시작된 나의 걷기는 생각보다 땀나고 힘들어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딸아이 친구 엄마와 한 시간 넘게 걷고 난 후 집에 돌아와서 흘린 땀을 씻어내는 희열은 내게는 새로운 감동

이었다. 게다가 같이 걷는 친구가 있어서 더 신나고 좋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떻게 걸었는지 모를 정도로 1시간이 지나가 버렸기에 힘들어도 힘들음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며칠... 걷기 친구가 집안일로 당분간 함께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처음이기에 같이 걷는다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도 큰 위안이었고 걸을 수 있는 원동력이었는데... 너무 슬펐다. 어떻게 시작된 건데... 그러나 신기하게도 다음 날부터 어디서 용기가 솟아났는지 모자를 꼭 눌러쓰고 작은 물통을 손에 든 나는 혼자 걷기 시작했다. 5킬로미터를 씩씩하게 걷는 나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졌다. 비가 내려도 우산을 들고 걸었으며 살짝 뿌리는 비 따위는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식단도 야채와 닭 가슴살, 삶은 달걀을 먹고 탄수화물 섭취는 소량으로 줄이려고 애썼다. 2리터 가량의 물도 수시로 열심히 나눠 마셨다.

일주일이 지나니 아무 변화가 없던 몸무게가 0.1킬로그램씩 변화가 찾아왔다. 조금씩 줄어드는 몸무게가 신기했고 그럴수록 걷기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4월의 반을 보내고, 5월의 첫 주를 보냈다.

걷기 친구와 다시 재회하여 걷던, 5월 둘째 주 첫날에 나는 그만 몸살이 나고 말았다. 1시간을 걷고 돌아오는데, 날씨가 살짝 춥기도 했고, 다른 날들과는 다르게 몸에 한기가 느껴지고 다리가 쭈뼛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온몸이 쭈시기 시작했다. 얼른 약을 먹고 누웠지만 몸살로 3일을 힘들어하며 걷기 역시 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열심히 걸어본 적이 없었고 몸무게를 줄여본 적도 없었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그 한 번의 고비를 넘기고 다시 걷기를 시작했다. 한 달 정도의 노력한 시간이 헛되지만은 않았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걸을 생각이 먼

저 든다. 비가 살짝 흠뻑리는 날에도 우산을 들고 길을 나선다. 걷기 속도도 빨라지고 힘들어서 헉헉대던 구간들에서도 힘들어 덜하다. 가끔 씩은 뛰어 보기도 한다. 걷기가 내게 새로운 희망을 준다. 걷는 것만으로 몸무게를 줄였다는 남들의 이야기가 서서히 나의 이야기가 되어간다. 친구의 충고가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되고, 실천할 수 있었던 내 마음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주말엔 가족과 함께 있으니 식단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같이 걷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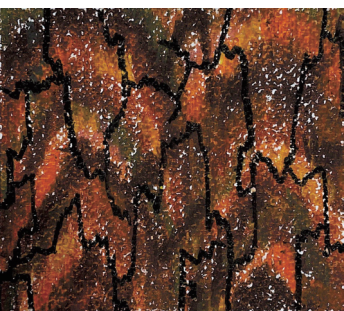
그러나 나는 앞으로도 계속 걸을 것이다.

지금까지 줄어든 몸무게는 코로나로 늘어난 몸무게의 반밖에 되지 않기에 더 열심히 걸어야 한다. 날씨가 더워지면 힘들어서 뽀가 날 수도 있다. 지금 이 좋은 시절에 열심히 걸어보자.

체중 감량이라고 해도 좋고, 건강을 위해서라고 해도 좋다.

내일 아침에도 걸을 생각에 내 마음은 설렌다. 부디 날씨가 도와주길~~~

짓 다



김
병
혁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에 대한 집념은 꽤나 강하다. 물건 위에 또 다른 물건. 그것들의 교합력의 한계가 이르러서야 보이는 전체적인 조망. 여태껏 시도돼 본 적 없는 건축물이 여기에 서 있게 된다. 하지만 바람과 물에 의해 쓰러져 내리게 될 운명을 가진 이들은 그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다르게 그 결말에 이르러서는 제작자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와장창 무너져 내린다. 애초에 우리는 안 맞는 연인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각자 알아서 잘 견뎌갈 거라면 어째서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일까. 어떤 이득이 되길래 굳이 내 몸뚱어리를 거기에 꾸겨 넣는 것일까. 그토록 외로웠던가. 더 큰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게 그토록 충족적인 경험이었던가. 포개어진 살결들, 거기서 축축한 땀 내음을 느끼는 건 위생적이지 않은 일이 아닐까.

좀 떨어져라. 이제는 그만 붙을 때가 되지 않았나. 강경하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는 친구의 이야기는 여전히 내 팔뚝을 잡고 고래고래 술고래가 되어간다. 그리고 이 덩어리가 그리웠던가. 그저 내 살이라도 내줄 수 있다면, 이것으로라도 괜찮다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드릴 수 있는 빗이라면 기꺼이 드리겠다. 나도 언젠가 당신의 목덜미에 축축한 눈물을 드렸기에. 이렇게 뜨거운 우리 사이는, 뒤섞이는 체액과는 다르게 그리 끈덕지진 않다. 해장이 될 때쯤, 후덥지근한 국물 한 사발에 넘겨버릴, 묻고 가야만 하는 그런 일들인 것이다. 당신은 이런 나와 왜 그리 가까워지려 하는가, 아니 멀어지려고 하는가.

뭔가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내 손안에 있는 것들은 그나마 익기 시작하면 거의 노동에 다름없는 행위들로 언젠가 습관이 되어버리겠지만, 움켜쥘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나는 너무나도 무력하다. 빠져들거나, 강요하거나. 그 길고 긴 싸움에 지쳐 결국 또다시 한 여름 밤의 주사로 마무리되어버린다. 글쓴이가 된다는 건 이리도 힘든 일이던가.

역이고 설킨 끈을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친구야, 너는 마주 잡은 우리의 손마디를 가를 수 있겠니? 물론 진짜 잘리는 게 더 아프다만, 이런 비유로 패여버린 상처는 고통으로만 환원되지 않아 너무 걱정이구나. 그거 알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대. 그 시간을 가르는 가장 작은 초침은 그토록 예리하단다. 괜히 시침과 분침보다 긴 게 아니야. 띵띠띠띠. 아 맞다. 이제 시계는 빙글빙글 돌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그 찰나, 빛이 사라지듯 깔끔한 이별은 가능하구나. 이토록 널 만들어가는 게 허무하다면 애초에 네 손에 내 손을 끼워주지 말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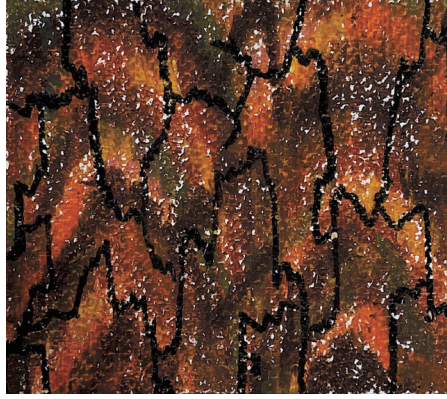
역지로 쥐어짜는 것도 한계야. 아무리 악력이 좋아도 더 진한 레모네이드는 만들어지지 않아. 심지어 네 손이 그렇게 깨끗할 거란 자신은 어디서 오는 거야? 깔끔히 만들어줘. 또다시 혼합된 용액을 경험하고 싶진 않아. 그래, 이젠 몸도 기계가 되어야 해. 그래야 언제든 분해하고 종합하고, 시계를 조여줄 부품들이 될 수 있지 않겠어. 어서 어서 가자. 일일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빨리빨리 쌓아올려! 공든 탑이 어찌 무너지랴, 근데 사실 무너져도 다시 만들면 그만이야. 정 없음 사람으로 길어올리지 뭐. 창조라는 건 그렇잖아. 제작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그 누구도 재료에 관심을 갖지 않아. 사실 그 구성물이야말로 이 건축물의 토대인데 말이야.

수제 버거는 역시 맛있어. 역시 손맛이라는 게 있다니까. 공장제에서 느껴지지 않는 정이란 게 있달까.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받을 때 난 조금 더 이 세상이 살기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이 세계, 서로가 서로에게 매너를 지키고 악수를 건네는 그런 세상 말이야. 그런 평화의 시대.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그릴 수 있어, 그렇지? 물론 이젠 손을 잡는 일에 대해선 거리를 둘 필요가 있긴 하지만 말이야. 그래도 그 따뜻함은 여

전히 손가락을 통해 느껴지는걸! 아, 근데 또 깜빡했어. 나도 역시 '사람들'에 속하나 봐. 제작자만을 기억하고 재료를 무시한단 말이야. 그니까 무시하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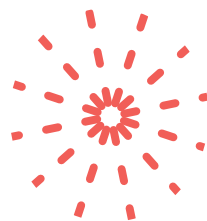
무시하지 마. 지금 땅을 딛고 있는 네 두 발을. 지금의 첨단 과학으로도 구현 못하는 오랜 실험의 산물을. 그 균형감을. 팽팽하게 너를 지탱해 주는 근육들과 뼈를. 그리고 그 유기체적 열망이 요구하는 다른 신체들을. 맞잡고 쉼이고 그러면서도 경계하고 떨어져 있대도 느껴지는 기운들을. 마법과도 같은 관계의 실재성을. 원자들의 옷을 벗기지 마. 그렇게 벗겨서 남은 건 그저 의미 없는 돌멩이였던 거잖아. 아니, 이젠 이게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여기저기에 있는지도 모르잖아. 다시 옷을 입혀줘, 아니 둘둘 말아싸줘. 포장이 거해도 괜찮아. 어차피 남은 건 껍데기 아니겠어? 알맹이는 이미 누군가 쏙 빼먹어버리잖아.

너무 멀리 가지 마. 친구야, 지금 맞잡은 우리 두 손 잘 씻어보자. 지금은 껍데기는 가라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 어차피 껍데기의 껍데기가 껍데기고 이 껍데기는 내가 감각하는 너잖아. 너는 주름이야. 사랑스러운 내 친구야, 어느덧 우린 많이 접혀져 있구나. 우리 모두가 피부를 매끈하게 짹짹 편다면 우린 서 있을 자리도 없겠지. 잊지 마. 이미 켜여있는걸. 거부하려 해도 어찌겠어. 양자역학은 몸애야말로 잘 적용되는걸. 난 널 만지면서서 네가 날 만지니까. 수많은 중첩의 꼬트머리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게 우리의 살결인걸. 그러니 밀지 마. 무너뜨리지 마. 난 네 땀을 견뎌낼 수 있어. 물론 잠시 떨어지는 건 좋아. 근데 그 상쾌함도 결국 우리들의 가장자리 가장 끝이라는 거. 미안해.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물론 그렇다면 고마워하거나 미안할 거 없어. 어차피 언젠가 무너져내릴 거야. 차라리 젠가처럼 쿨하게 넘어지면 다행이지. 우린 다 같이 피를 흘리고 균열이 생기겠지. 그리고 그 조각난 모양이 우리의



새로운 모습일 거고, 그 상처를 평생 훑아야 할 거야. 하지만 기억해 줘
내 애인아. 우리가 거기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균열이 완전
한 이별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우린 새로운 바닥을 만났는지
모르지. 거기서, 그 공동의 토대에서 다시 두 다리 펴고 서서 서로 바라
보자. 이제는 손 맞잡진 못해도 서로를 눈동자에 담아 갈 수 있게끔. 그
리고 다친 곳이 아물어 다시 접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까먹는 그 명
청한 날, 우린 다시 서로의 울퉁불퉁한 주름을 맞대며 다시금 쌓아올라
가겠지. 또다시 시 한 수 지어주그러, 내 벗이여.

사
설
^
불
바
다
v



이
밥

내 어찌다 20세기 한복판에 대한민국에 태어나 50이 넘도록 그
 저 성장 성장 성장만을 외치며 살아오다가 어느 날 문득 3월에 여름 꽃
 이 피더니 4월에 장마가 들고 5월에 한 여름이 되더니 6월에 가을이 왔
 다가 7월과 8월엔 내내 비만 오는 이상한 세월을 만나게 되었었다. 설
 상가상 작년부터던 이상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어 허구헌 날 사람
 한번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한 여름 펄펄 끓는 피약별 아래서도 숨이 턱
 턱 막히는 마스크를 쓰고 지내고 있던 중... 하 글썽 이것이 모두 사람들
 이 돈에 미쳐서는 그저 돈돈돈돈 거리면서 땅속의 조상 시체들을 마구
 태우다가/ 아 ~ 그것도 모자라 쉼일 가스니 뽀니 지구의 뼈까지 쪼개어
 마구 태워대며 아 글썽 지구의 온도를 마구 올려놨기 때문에 벌어진 사
 건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었다. 하긴... 이미 몇 년 전부터 북극의 곰들도
 얼음이 꺼져서 살지 못하게 되고 고래니 거북이니 참치니 고등어니 윈
 갓 동물들이 비니루에 목을 매달고 바다의 윈갓 산호초마저도 모두 돌
 이 되어버리는 지경이라더니 드디어 이제 우리 인간도 더 이상은 살질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니 내 어찌 이렇게 가만히 죽을 날만 기
 다리고 있겠는가? 듣자 하니 돈이라면 환장하여 지구의 윈갓 것들을 다
 태워대며 지구의 온도를 죽자 사자 올리는 놈들이 뽀뽀거리며 잘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바 내 죽을 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 죽을 거면
 그 중 한 놈이라도 끌어안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오늘내일 차일피일
 그 놈들 중에 한 놈이라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하이고 이게 웬
 형제냐? 그 지구를 태우던 화석들이 더 태울 것이 있나 궁리를 하겠대며
 석탄이 많이 있다는 삼척으로 모여든다 하기에 내 바로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삼척으로 달려갔더니만.... 발전소라나 뽀라나 아 이놈들이 거대
 한 건물을 하나 지어 놓고 그 불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어떤 놈이 뜨거운
 것을 잘 견디는지 카지노를 한판 벌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맛 뜨거라! 바로 쳐들어갔다간 한 놈의 목을 잡기도 전에 내가 먼저 타 죽을 판이라 일단은 그놈들의 카지노 한 판을 들여다보며 기회를 기다려보기로 하고는 그놈들의 카지노 한판을 보는데 가관이 아닐 수가 없더라!

첫째 화적 불 피운다! 플라스틱이라는 놈 불 피운다. 석유 획획 뿌려대니 페트병 1억 개가 튀나온다. 또 한 번 뿌려대니 비닐봉다리 3억 장~ 전 세계로 날아간다.

아이쿠 일단은 저 화적부터 죽여야 내가 살겠거니 아 이놈의 목을 획 잡아채려는데. 아 어느샌가 둘째 화적 놈이 또 불을 피우지 않았는가?

둘째 화적 불 피운다! 핵발전소 놈 불 피운다. 우라늄 획획 뿌려대니 플루토늄 튀나온다. 또 한 번 뿌려대니 방사능이 퍼져간다.

아이쿠 이놈은 또 무엇이야? 이놈부터 죽여야 내가 살겠나... 이쯤 되면 아무리 단순무식한 나라도 마음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순 없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 아 어느샌가 셋째 화적 놈이 나타나 불을 피우지 않았는가?

셋째 화적 불 피운다! 화력발전 놈 불 피운다. 석탄 획획 뿌려대니 검은 연기 폭폭 올라간다. 또 한 번 뿌려대니 미세먼지 폴폴 피어난다.

아이쿠 이놈은 또 무엇이야? 아 이제 이쯤 되면 내 소싯적 16 대 1 싸움 실력을 발휘하여 한꺼번에 세 놈을 모조리 죽여야 하는 건 아닌지 잠시 고민에 빠져드는데... 아니 저놈은 또 무엇이야? 또 있었단 말이야?

넷째 화적 불 피운다! 다국적기업 놈 불 피운다! 플랫폼을 뿌려대니 사람들이 모여든다. 종아요를 구걸하고 댕글도 구걸한다. 구걸구걸 구걸하니 서버들이 변쩍인다. 서버들이 변쩍이니 탄소들이 튀나온다. 생긴 거는 깔끔한 게 호박씨 까고 있었구나!

아니 그럼 이놈부터 죽여야 내가 사나? 16 대 1도 이겨본 내가 4 대 1이라고 가릴쏘냐. 이제 이 네놈들을 몽조리 붙잡아 메다 꽃으려고 하는데....

아~ 한 놈 더 있었다! 관료 놈이 튀나온다!

근데 보아하니 이놈은 불 피울 재주는 별 없어 보이는데, 아 이놈이 이 판에는 왜 끼었을까? 궁금해 하고 있는데,

아 저놈 재조 봐라! 첫째 놈에게 업히더니 둘째 놈한테 무동타고 셋째 놈한테 안마 받네! 발가락을 꼬지락 대니 넷째 놈이 발 마사지!

아 이놈이 안마와 마사지까지 받고 잠을 자려나 불 위 온돌 위에 벌러덩 눕는데, 아 이놈의 거시기가 불 길 속에서 까딱까딱 거리는데 아 그 까딱거리는 모양새가 꼭 오케스트라 지휘봉 까딱거리는 모양인 것 같더니 아 까딱 거리는 거시기에 맞춰 네놈이 또 합창을 해 대는데!

우리는 뭐든지 다한다 돈 되면 뭐든지 다해 돈 되면 지구도 태운다 지구를 탄소로 채워

우리는 뭐든지 다한다 돈 되면 지구도 태워 우리는 뭐든지 다한다 돈 되면 탄소도 뿌려

우리는 뭐든지 다한다 지구의 온도도 올려 우리는 뭐든지 다한다 돈 되면 인류도 멸종

아 이때 나 말고도 이놈들의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받아쓰기
만 능한 기자들이 모여 들었는데~ 어떻게 쓰라고 불러주는 놈이 없으니
그저 반병어리처럼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데~ 아 이때
다섯 놈 중 한 놈이 벌떡 일어나며 질문을 하시오 하였것다! 그랬더니
질문은 못 하고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데 아 그 모습이
어찌나 바보 같던지 아 그만 참고 참던 웃음이 ㅋㅋㅋㅋ ㅋㅋㅋㅋ 터져
나오고 말았것다! 내 웃음소리에 어떤 화적 놈 하나 쳐다보지 않는데,
웬 도적이 여기 들어왔다!

기자들이 외쳐댄다! 나한테만 외쳐댄다! 니가 기후위기 주범이
지? 우린 약한 놈만 후려 팬다!

아 이놈들이 진짜 화적한테는 꿈쩍도 못 하더니 나한테만 달려들
었것다! 아! 이쯤 되면 이판사판 공사판 일단은 기자 놈들부터 메다 꽃
는다!

조 씨 기자 메다 꽃고, 중 씨 기자 메다 꽃고~~~ 동 씨 기자한테
퐁침을 그냥~ 뽕~ 뽕~

아 이놈의 퐁침이 어찌나 썩게 꽃혔던지 동씨 기자 퐁꼬에 불이
획 붙어버렸겠다!

어마 뜨거라! 퐁꼬에 불이 붙은 동 씨기자 날뛰면서 살려달라 애
원해도 조 씨 기자 뒷걸음질 중 씨기잔 옆걸음질!

아 이놈들이 정신이 완전히 나갔던지 글썽 뒷걸음질 옆 걸음질을 하필이면 화적 놈들 불속으로 갈 게 뭐가? 화적들이 깜짝 놀라 이놈들에게 오지 말라고 부지깽이를 마구 휘둘러댔으나 똥꼬에 불붙은 동 씨기자 몸이 콰아앙~~~ 터지더니 그 불꽃이 조 씨 기자한테도 옮겨붙고 중 씨 기자한테도 옮겨 붙더니 이윽고 다섯 화적 놈들에게도 옮겨 붙었는데 아 이 놈들이 지난 수백 년간 어찌나 돈을 많이 쳐먹어 댔던지 몸에 기름이 줄줄줄줄 흐르는지라 불이 그만 순식간에 붙어버렸겠다! 어맛 뜨거라! 나도 타 없어질세라 걸음아 날 살려라 카지노판을 도망쳐 나오는데 우르르 쿵쿵 쿵쿵쿵! 내 뒤 쪽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리더니 다섯 화적 놈들과 조 씨 중 씨 동 씨 기자들의 재가 산을 이루었는데 그 재의 산에서 파릇파릇 새싹들이 올라와서는 이윽고 아름다운 푸른동산이 되었더라. 열쑈~~~











최만린 미술관









0의 세계

차정미

없는 시간

없는 사람

마음에 집중하면

몸이 없는 듯했다

깊고 좁은

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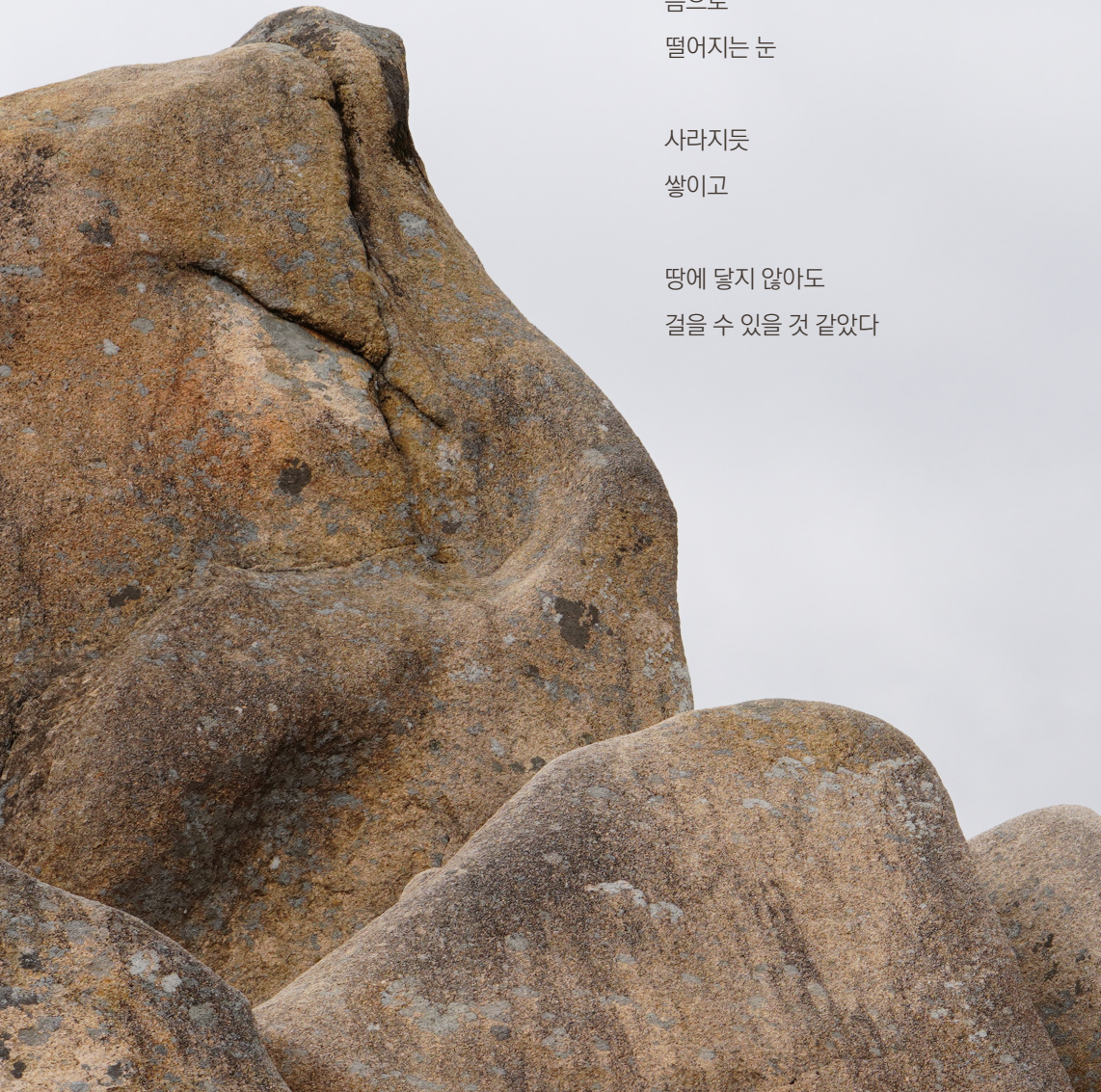
떨어지는 눈

사라지듯

쌓이고

땅에 닿지 않아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낮선 곳에서 우리집이 보이고

방 깊숙이
향냄새가 풍겨져 온다

문을 열면
뜯어진 문

문을 지나도 계속 문

나는 아직도 박인가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어보는
평평한 오후

이마를 맞대고 있으면
어떤 별에 착륙한 것 같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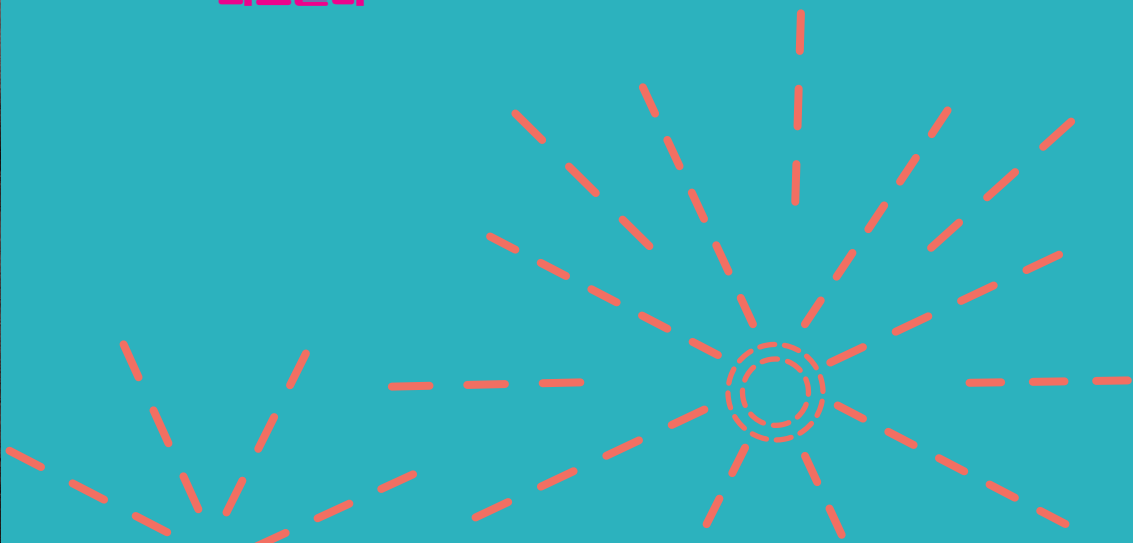








요리조리
깊이
파고들다



이야기꾼으로서의 김소진



김가희

김소진에 대해 말하려면 그의 출생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1997년, 서른다섯의 나이로 요절한 작가 김소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간 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을 허전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만, 그가 자신의 원체험이라 말한 산동네 미아리와 아버지 그리고 80년대 운동권이라는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작업을 완성하지 못한 데서 오는 허탈감이 크다. 김소진이 살아 있다면 우리 시대가 필요한 지혜를 나눠줄 그런 이야기꾼으로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행운을 내가 누리고 있지 않을까?

나는 김소진을 이야기꾼이라 부르겠다. 깨어나 잠드는 순간까지 휴대폰 속에서 이야기를 찾아 헤매는 현대인들은 정작 듣고 싶은 이야기를 찾지 못한다. 이야기꾼을 정의하기 위해 독일철학자 벤야민을 불러내보자. “뭔가 제대로 이야기를 들려줄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소망이 커갈수록 사람들 사이에 당혹감이 더 자주 퍼져간다.”*(416)고 말하면서 벤야민은 “이야기하는 기술이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경험을 환기시킨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경험을 원천으로 한다. 벤야민은 당대에 이미 경험을 전할 줄 아는 능력, 즉 이야기하는 능력이 박탈당했다고 한다.

* 벤야민, 발터. 최성만 옮김. 「이야기꾼: 니콜라이 레스코프의 작품에 대한 고찰」. 『서사·기억·비평의 자리』. 도서출판 길, 2012. 413~460.

이야기의 대립점에 소설이 있다. 이야기는 집단의 기억 즉 공동체의 구전이라는 전통에 속해 있지만 소설의 산실은 고독한 개인이다. 소설은 “인간의 삶을 서술할 때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을 극단으로 끌고”(423) 간다. 개인과 사적인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야기의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설보다 더 위협적으로 이야기에 맞서는 것이 바로 신문, 라디오 등의 매체에서 나오는 정보다. 매일 아침 접하는 새로운 사건들의 소식은 이해 가능한 설명이 덧붙여지기 때문에 상상력이 제한된다. 이야기로서의 가치가 하락한다. 정보는 새로운 순간이 지나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잃는다. 하지만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다시 이야기된다.

벤야민은 진정한 이야기는 유용성을 지니는데, 이야기꾼이 바로 조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조언이란 말에 반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벤야민 역시 이 점을 의식했던 것 같다. 그는 조언을 “어떤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 어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과 관련된 어떤 제안”(422)이라고 말한다. 조언 대신 지혜라 말해도 좋겠다. 이야기는 실제 삶에 지혜를 주는 유용성을 지니는데 정보와 다르게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과 상상력을 통해 소진되지 않고 다시 펼쳐지는 능력을 갖는다.

벤야민은 러시아 작가 레스코프를 통해 이야기를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한 예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그는 이야기의 종말을 선언했다기보다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글쓰기 또는 서사 방식을 고민했다고 볼 수 있다. “작가로서 글을 쓴다는 것은 내게는 결코 자유로운 예술이 아니라 수공업입니다”(431)고 말하며 레스코프는 이야기하기, 즉 소설 쓰기를 작가의 경험을 직조하는 수공업에 비유한다. 그의 이야기에는 그의 흔적이 체험이나 보고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야기는 정보나 보고처럼 사물의 순수한 실체를 전달하는 것을 침잠시키고 나중에 다시 그 사물을 그 사람에게서 건져 올린다. 그래서 이야기에는 웅기그릇에 도공의 손자국이 남아 있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다. (430)

이야기하는 사람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수공업자처럼 자신의 체험을 한 올 한 올 직조해서 공동체의 집단적 기억을 재구성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과 상상력으로 삶의 직물 속에 짜인 조연 즉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소진이야말로 이 시대가 잃어버린 진정한 이야기꾼이다.

김소진의 흔적을 찾아 미아리 산동네로 먼저 떠나보자. 그의 마지막 작품인 「눈사람 속의 향아리」에서 작가의 분신이라 할 민홍이 재개발을 앞두고 곧 철거가 시작될 미아리를 찾아간다. 그를 미아리로 가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한 지붕 아홉 가구의 장석조네 집에 대한 기억”*(295)이다. 그런 “기억의 끈질김에 대해 새삼 진저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295)고 생각하던 민홍은 자연스레 이십 년도 더 바랜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 설을 쉰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새벽에 변소에 갔다 나오던 어린 민홍은 빠루를 잘못 밟아 욕쟁이 할머니의 향아리를 깨뜨린다. 혼이 날까 겁을 먹은 민홍은 깨진 향아리를 눈사람으로 만들어 감추고 집을 빠져나와 하루 종일 동네를 헤매다 돌아온다. 민홍은 혼이 날 생각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예상과 달리 자신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현실에 낯설어한다. 이 사건은 정신적 흔들림에서 오는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피로감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는 지루한 예감이 그날 어슴푸레한 새벽에 덮친 절망감의

* 김소진, 「눈 사람 속의 향아리」, 『신평근 배커리 약사』, 문학동네, 2012.



핵심이었다. 문간통에서 두 번째 집구석에 사는 술주정뱅이 고물장수 순심이 아버지의 노상 흐느적거리는 두 팔과 술 때문에 항상 짓물러져 있는 눈자위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아저씨도 나처럼 피로해서 그랬을까? (299)

어린 민홍의 피로감의 정체는 산동네 빈민들이 떠안고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자신도 지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온 후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경험하며 민홍은 “내가 짐작하고 또 생각하는 세계하고 실제 세계 사이에는 이렇듯 머나먼 거리가 놓여 있었”(312) 다는 사실과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는 현실을 깨닫는다. 이 사건은 민홍을 어른의 세계로 진입시킨다.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경험은 혼돈스럽고 불안한 일로 민홍의 기억 속에서 재기억된다.

미아리 산동네는 김소진의 원체험 공간이다. 등단한 작품인 「쥐잡기」에서 「눈 사람 속의 향아리」에 이르기까지 6여 년 동안 김소진의 원체험은 그의 기억을 매개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가공되어 다양한 공간과 사람들로 탄생한다. 그는 1995년에 『장석조네 사람들』을 펴내며 소설의 시공간적 배경인 미아리와 기찻집에 대해 설명한다. “나는 아직까지 상상력이나 취재보다는 기억에 크게 의존하는 소설 쓰기를 하는 편이다”^{**} (32) 라며 잊고 싶은 것들이 더 집요하게 기억되는 기억의

^{**} 김소진. 「원체험, 기억 그리고 소설」. 『그리운 동방』. 문학동네, 2008. 32-37.

불편함을 해석하기 위해 원체험이란 말을 꺼낸다. 원체험을 “전쟁, 보릿고개(가난), 근친상간, 혈육의 죽음, 애비 부재 등등이 원체험의 범주들”(32)로 설명하며, “많은 소설들이 그 내밀한 상처의 텃밭 속을 이리저리 거닐며 주섬주섬 엮어진 것”이라 말한다.

그는 소설을 패배자의 기록으로, “나는 나와 함께 현실에서 패한 그들을 위무할 책무와 기억이 있다”라고 밝힌다. 현실에서 졌다고 고백하는 작가는 또한 그 패배의 절반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한다. 김소진은 “내 유년 시절을 오롯이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다”(35) 한다.

거기에 내가 있다. 우는 내가 있고, 웃는 내가 있고, 똥 싸고 먹고, 속임수 치고, 싸구려 사탕을 허벌나게 빨아대는 내가 있다. 그리고 나를 닮은 아버지가 거기 있다. 거기를 갔다 오지 않고서는 앞을 향한 어떤 여행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지금 내가 위태로운 시점에 서 있다는 반증 외에 하등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35)

김소진의 소설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한 남자의 글쓰기이며 사라져가는 것들에 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의 기록이다. 그러나 자신의 패배의 절반이 외부 세계에 있다고 말하는데서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상처와 회복의 이야기로만 볼 수 없다. 작가인 그에게 소설 쓰기는 “‘무의식적인 역사 기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치 있는 기억으로 재탄생”*(3)했다는 점에서 그의 원체험에 대한 기억은 그 세대의 기억의 원형으로 읽을 수 있다.

* 민새은. 『김소진 소설 연구 - 기억의 서사화 기억의 서사화 양상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조명기는 김소진 소설을 “1980년대의 시대적 상황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후일담 소설을 통해 벌충한 후 급격히 사소설로 전환해가는 대신, 이 전환의 연결고리 즉 국가 단위의 추상적인 거대담론이 배제하고 외면했던 것들”^{***}(294)에 관한 탐색으로 본다. 김소진은 거대담론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와 자신들의 몫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타자화된 공간인 미아리 산동네에서 가난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던 사람들에 관한 기억을 통해 그들을 위로한다.

보릿고개를 분쇄한다며 질주하던 개발 독재의 바람이 드세던 시절,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던 곳 중의 하나가 바로 미아리 산동네였다. 그리고 농촌을 등지고 서울로 몰려든 사람들을 수용했던 집이 바로 장석조네 집 같은 곳이었다. 아마도 이런 집 구조는 당시 서울 시내 변두리 곳곳에 존재했으리라.^{***}(36)

『장석조네 사람들』에서 비운의 육손이 형인 광수가 보기에 미아리 산동네의 바깥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곳, 즉 “문둥이가 열라들 간 빼묵듯 사람 진을 쪽쪽 빼묵는 곳”^{****}(51)이다. 미아리 산동네 안에서는 쓸모가 있고 제 밥값은 한다던 광수는 바깥세상으로 나간 후 결국에는 시립병원에서 행려병자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시체를 해부 실험용으로 기증한다. 해부 이후에 자신을 땅속에 묻어준다는 말에 기증서에 서약을 한 광수는 땅속에 묻혀 향기가 되어 사라지고 싶다는 마지막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 광수는 자신이 땅속에 묻히는 걸 지켜봐달라고 화자인 나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조명기. 「김소진 소설에 나타난 도시 주변 공간의 로컬리티」. 현대문학이론학회 제 43권. 2010. 293-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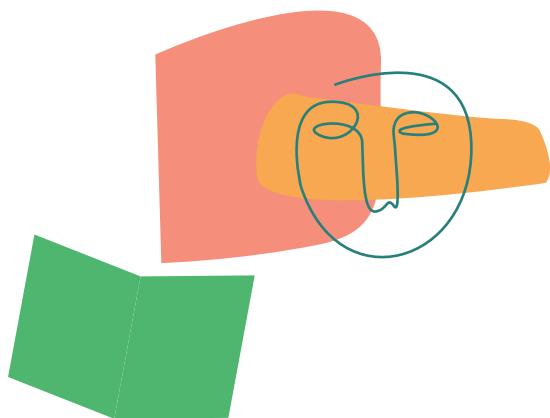
^{***} 김소진. 「원체험, 기억 그리고 소설」. 『그리운 동방』. 문학동네, 2008. 32-37.

^{****} 김소진. 『장석조네 사람들』. 문학동네, 2015.

바깥세상과 단절된 폐쇄된 공간인 산동네는 쭈근거림의 소문과 다툼과 시비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지만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연민과 인정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쌍과부집」에서 보면 실성한 한 여인(콩점이)이 동네로 들어와 터를 잡고 남의 집 허드렛일을 하거나 고물을 주워 팔며 살아간다. 그러던 중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이웃들은 그녀를 측은히 여기며 그녀의 출산까지 돕는다. 하지만 같은 에피소드에 나오는 택이 엄마는 남편의 폭력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웃을 돌보는 인정이 살아있는 공간은 동시에 성폭력과 가정 폭력의 공간이기도 하다. 가정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지금과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성숙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과거에 동네에서 함께 살아갔던 콩점이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기 힘들다는 사실은 성숙이라는 이름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야 하는 사람들의 배제와 공동체의 책임을 희생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닐지 반문하게 한다.

70~80년대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살았던 곳인 산동네들은 없애거나 정비의 대상으로 도시에서 사라진 동시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간다. 『장석조네 사람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양공주, 들병이, 논다니, 왕십리 성냥공장 노동자에서 상이군인, 월남 군인, 광부, 풍지계꾼, 프로 레슬러, 백골단에 이르기까지 국가 단위의 집단의 기억에서 지워지거나 지우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재개발로 인해 뉴타운으로 변신한 미아리는 그 이름마저 바꾸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과거의 흔적을 지우려 한다.

김소진은 재개발로 사라질 자신의 경험의 흔적을 더듬으며 자신의 과거 및 미아리 산동네의 과거 세계를 재구성해낸다. 그는 자신의 기준에서 그들의 삶을 옳고 그름에 의해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이 자유롭게 상상하며 미아리 산동네의 공간과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다. 누군가에게나 있을 원체험에 직접 맞서 직면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김소진이야말로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이야기꾼이라 할 만하다.



기본을 지키는 운동1

엉덩이를 살리자

사피엔스에서 찾은 운동의 기본



임균

인류학과 역사학을 잘 융합해 상당히 두꺼운 책임에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유발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제한되는 가운데 읽었습니다. 현생 인류의 최초 등장이었던 사피엔스가 어떻게 지구에서 정복자가 되었는지 설명하고, 그런 인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책이었습니다.

사피엔스는 직립보행을 하면서 도구를 사용한 사냥을 시작했고, 이를 위해 많은 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대륙에 진출했고, 번성하며 농업혁명의 시초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기본이 되는 운동 이야기의 시작이 될 아이디어를 얻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버드대 생물인류학자 댄 리버맨 교수는 인간이 사냥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은 사냥감이었던 동물들과는 다른 ‘장거리 달리기’ 능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책 『사피엔스』에서 현생 인류는 집단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소수일 경우에는 지금의 사슴이나 들소의 조상쯤 되는 동물을, 다수일 경우에는 매머드 같은 동물을 사냥했을 겁니다. 아직 나무 창, 돌도끼 같은 도구로는 쉽게 사냥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죠. 당연히 사냥감들은 전력을 다해 도망쳤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장거리 달리기’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아직은 빈약한 사냥도구 탓에 한 번에 죽이지는 못하지만, 상처를 입고 도망치는 사냥감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쫓아잡니다. 속도는 사냥감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인 개도 평균속도가 50km 정도는 됩니다.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의 가장 빠른 순간속도가 40km 중반이니, 평균적인 사람은 어지간한 동물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생인류는 가죽 대신 발달한 땀샘과 체온조절 능력, 직립보행을 통한 탄력 있는 발걸음을 통해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선수들은 특별하지만, 아마추어 레벨에서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 완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훌륭한 사냥꾼은 한 번에 사냥감을 제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쫓아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냥감이 쉬지 않고 도망치다가 탈진하도록 따라가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장시간, 장거리를 이동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운동의 시각에서 보면 직립보행을 위해 발달한 ‘엉덩이’에 있습니다. 엉덩이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가능했을까요? 엉덩이는 하체가 시작하는 부분인 동시에 몸을 움직일 때 상체, 특히 척추를 밑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도 합니다. 엉덩이는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합니다. 크기에 따라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으로 부릅니다.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걷거나 달릴 때 몸의 자세를 잡아주고, 하체 전반에 힘을 전달합니다.

그런 엉덩이가 현대에서는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건강미의 기준이기도 하죠. 왜 그런 시각이 생긴 걸까요? 생각보다 엉덩이가 건강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류는 사냥을 위해 수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사냥을 하지 않더라도 더 안전한 보금자리를 위해, 혹은 채집을 위해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렇게 운동에 관련된 글을 쓰는 저조차도 부끄럽지만, 하루에 1만 보를 채워 걷는 날이 한 달에 절반을 간신히 넘습니다. 1만 보는 보폭 50cm로 계산하면 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좌식생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곳에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엉덩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엉덩이의 대표적인 증상이 ‘엉덩이 기억 상실증’입니다.

‘엉덩이 기억 상실증’은 장시간의 좌식생활로 인해 엉덩이 근력이 점차 감소하면서 엉덩이가 해야 할 일을 그 아래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그 위 요추 주변근(허리근육)이 대신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엉덩이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주변 근육인 허리와 허벅지 근육이 그 일을 대신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엉덩이 기억 상실증’은 하루 7~8시간 이상을 앉아 있으면서 활동량이 적은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 있으면, 엉덩이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니 허리 주변부가 상체를 지탱하고, 하체의 힘 전달도 햄스트링이 대신하게 됩니다. 원래 하던 일을 안 하게 된 엉덩이는 탄력 없이 처지고, 납작해집니다.

반면 엉덩이의 일을 대신하게 된 허리와 햄스트링은 훨씬 더 긴장하게 됩니다. 햄스트링은 긴장이 과해서 점점 짧아진 채로 유연성을





잃어버립니다. 상체를 받치는데 더 큰 힘을 쓰게 된 허리는 통증을 유발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픈 이유는 자세의 문제도 있지만, 이미 엉덩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운동능력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운동이 있어도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걷기를 하더라도 다리나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의 필자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30살을 갓 넘긴 나이에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이 상태가 오래되면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패턴을 바꾸기란, 현대의 보편적인 생활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할 일은 ‘엉덩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극히 필자의 견해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움직임을 잃어버린 엉덩이를 살리려면 당연히 엉덩이를 자극해야 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엉덩이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원하는 운동은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운동입니다. 엉덩이가 하는 역할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고, 탄력 있게 걷고 달리게 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운동도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엉덩이를 움직이기 가장 쉬운 운동을 하나만 꼽으라면 당연히 달리기입니다. 필자의 초기 글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초를 위한 운동으로서도 달리기는 누구에게나 추천합니다. 달리기가 좋은 운동이라면, 걷기도 괜찮은 거 아니야?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최초의 인류에서 진화한 이족보행은 엉덩이의 사용을 덜 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쉽게 말해, 걸을 때는 엉덩이를 덜 쓰도록 발달했다는 겁니다. 이걸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도 연결됩니다. 그냥 걷기만으로도 엉덩이가 많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많이 쓰면 우리의 선조들은 진즉에 지쳐서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곧 걷기로는 효율적으로 엉덩이를 자극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엉덩이를 자극하고 깨우기 위한 운동으로는 걷기보다는 달리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잠들어 있는 엉덩이를 깨우기 위해 처음부터 힘차게 달리는 어렵습니다.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 왔다는 것은 다른 신체적인 기능도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랜 시간 기본적인 활동 자체가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달릴 것을 먼저 권합니다. 자신의 체력과 몸 상태에 맞춰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리를 꾸준히 달려보는 것입니다. 거리와 시간을 체크하면서 몸 상태가 올라오면 거리를 늘리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동량을 늘려나갑니다. 물론 엉덩이 외에 다른 근골격계 문제(발목, 무릎 부상 등)가 있다면 당연히 해결을 하고 운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운동을 배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달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대로 달리는 어렵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달리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몸에 부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달릴 줄 안다,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몸을 아끼는 점점의 차원에서라도 코칭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자, 운동의 기본이 되는 엉덩이 근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엉덩이 기억 상실증은 아닌지 한 번 점검해 보고 다른 무엇을 위해서도 아닌 스스로를 위한 운동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지 권해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다른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참고자료

-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김영사, 2015.
- 이영임 기자, “〈과학〉고대인류, 올림픽 어느 종목 유리할까?”, 연합뉴스, 2008. 08. 07, <https://news.v.daum.net/v/20080807092308704?f=o>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간호사의 노동에 대하여



이민화

나는 간호학과를 졸업해 1년 8개월 동안 간호사로 일하다 버티기 힘든 노동환경 때문에 간호사를 그만두고 웹디자이너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직업을 바꾸면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지만 웹디자이너로 일한다는 것도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두 직업 모두 한 사람이 두세 사람 몫의 일을 해야 하는 환경이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개인이 일터를 옮기고 직업을 바꾸어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많은 간호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과로에 시달린 웹디자이너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어떤 직업이든 사업주의 횡포로 노동자가 희생될 수 있다. 올해 초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것은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라고 여겨진다. 해당 기업에서 또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게 하는 법안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고 부르며 끝없이 헌신하고 친절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실제 간호사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환자들을 살리고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보자면 간호사들은 자신을 혹사시켜가며 밥 먹고 물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시간 외 근무 등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환자들이 더 나빠지지 않게 노력한다.

간호사도 한 명의 노동자다. 어느 직종에서든 노동자 1명은 노동자 1명이 할 수 있는 적정량의 일을 해야 한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많은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진 채 일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환자의 건강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환자 당 간호사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이면 환자 사망률이 최소 4%에서 최대 16%까지 낮아진다고 한다.) 병원이 간호사 1명에게 더 많은 환자를 맡길수록 그 환자는 더 위험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병원에 맞서서 환자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적정 노동조건을 요구해야만 한다. 더불어 언제 환자가 될지 모르는 일반 시민들도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이나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호사가 얼마나 자주 환자를 대면하는지 떠올려보자. 그리고 종종 예민해진 간호사의 모습이나 피곤해하는 모습, “잠시만요!”라는 말을 하고 다른 곳으로 바쁘게 달려가는 간호사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간호사가 왜 더 친절하게 자신을 대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간호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알려면 그 간호사가 맡은 환자의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3배에서 8배의 환자를 담당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호사의 연령대를 살펴보자. 이상하게도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20대~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이직률, 퇴사율이 높다는 점도 알 수 있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의 경우 35세 미만 간호사 수가 20%대이지만 한국은 2~30대가 72.4%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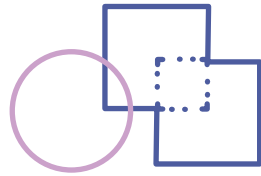
2018년 2월 1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신규 간호사로 일했던 고 박선옥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너였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추모집회에 300여 명의 시민과 간호사들이 모이게 되었다. 나는 간호사를 그만둔 지 10년이 넘었지만 오래전에 신규 간호사로 일하며 겪은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그 일은 한 신규 간호사만의 일이 아니었다.

사실 고 박선옥 간호사 이전에도 많은 간호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서울의료원의 고 서지윤 간호사,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의 간호직 공무원도 인력 부족 상황으로 인한 과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한 간호사들 이외에도 많은 간호사들이 살기 위해 병원을 떠나고 있다. 면허를 가진 간호사의 절반이 간호사로 일하지 않고 있다는 통계자료(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간호사 수(%):50.2% / 2016, OECD Health statistics)는 간호사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살인적인지 보여주고 있다.

간호사들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간호사 사망 사건 중 대책위가 꾸려졌던 고 박선옥, 고 서지윤 간호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의 많은 간호사들이 처한 환경이 고스란히 보인다.

먼저, 고 박선옥 간호사의 사례로 신규 간호사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엿볼 수 있다. 고인은 서울아산병원이라는 소위 빅 5에 속하는 대형병원에서 일했음에도 중환자실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기간





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그 교육기간조차 ‘프리셉터 교육제도’라는 경력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를 직접 교육하는 도제식 교육방식을 택하고 있다.

프리셉터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경력 간호사가 오로지 교육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를 간호하며 동시에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날이면 신규 간호사를 제대로 교육 할 수 없다. 경력 간호사들은 프리셉터 교육 기간을 ‘신규를 업고 일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만큼 원래의 일도 넘쳐나지만 신규 간호사의 교육까지 부담이 되어 환자를 제대로 간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약 2개월간의 교육기간이 끝나면 신규 간호사는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환자를 간호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특수 파트인 중환자실에는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하게 된다면 약 1년간의 교육기간을 가진다고 한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독립한 날부터 실수하지 않고 환자를 봐야 해서 신규 간호사에게는 매일 매일이 지옥과 같을 것이다. 부족한 교육 때문이지만, 본인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 나빠질까 봐 두려워하는 날들이 매일매일 반복된다.

가시밭길 같은 신규 간호사 시절을 버티고 경력 간호사가 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 대답은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서지윤 간호사는 서울의료원에서 7년 차 경력 간호사로 일하던 중 관리자들의 술한 면담 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간호행정부서로 배치이동되었고, 업무상 필요한 사무기기 및 책상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 간호 행정부서 일을 하다가 당일 병동으로 파견을 가는 등 유례없는 불공정한 업무 배치가 있었으며 결국 부서 이동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

이 두 사건은 한국의 많은 간호사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두 간호사들이 사망한 이후 각 병원의 대응은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고인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되었음에도 고인과 유가족에게 아직 공식적인 사과도 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사건 이후 간호사 면접장에서 곧 신규 간호사가 될 학생에게 “학교 선배가 자살한 병원인데 왜 지원했느냐. 힘든 신규 생활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라는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등 박선옥 간호사 사망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진상 대책위에 의해, 고인의 죽음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라는 조사 결과와 함께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한 34개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권고안은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서울시장이 약속했던 추모비도 고인의 사망 2년 만에 겨우 세워지게 되었다.

두 간호사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공고히 이어져왔던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에 의한 타살이다. 양 대책위(고 박선옥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가 몇 년간을 쉬지 않고 각 병원에게 요구했던 것은 죽음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이었다.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들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신규 간호사의 교육시스템, 그리고 병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의 결심 없이는 변화가 힘들다. 그동안 국가에서 해왔던 수많은 ‘권고’들로도 아무 변화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두 병원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간호사들이 많은 이유로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퇴사를 반복하고 있다. 신규 간호사들이 흔히 ‘출근길에 차에 치여서 몇 주 입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직도 많은 간호사들이 살인적인 업무로 인해 삶과 죽음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내 경험으로 인해 간호사 직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풀어보았지만 간호사 이외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으로 중대재해 재발방지에 대한 길이 열리기는 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한계점도 많은 법안이기도 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제 사례에서 처벌로 이어지고 재발방지와 사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때 이 법의 목적은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 생각한다.



'옥상의 자연인'이 사는 법



나오늘 (자연주의 생활기록예술인)

도시인 나 자연씨, 자연인이 되기로 하다

우리 집 옥상에는 자연인이 산다. 올해 처음 비로소 식물이라는 것을 키워보겠다면 '먹거리 자급'에 뛰어든 왕초보 농부, 바로 나 자연 씨이다. 식물이라 쓰고 '식량'이라 읽는다. 그는 "먹지도 못할 것은 뭇 하러 키우나!"라는 굳은 심지를 가지고 몇 년 전 마음만 앞서 미리 사두었던 장난감 같은 미니 원예 도구 2종 세트를 꺼내들었다.

큰 소리와는 반대로 나 자연 씨는 어설퍼다. 겨우 이제 막 자연 인이 되려 마음먹은 듯 보였다. 그는 이름과 외모가 주는 구수한 산골의 느낌과는 달리, 흙 한번 제대로 만져 본 적 없는 서울 출신 도시인이다. "고구마가 어디서 오나?" 질문하면 "택배아저씨로부터 오지."라 대답한 다는 도시 어린이들의 답변이 낯설지 않은, 식물과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곤 전혀 없는 전형적인 현대인의 '조각난' 삶을 살고 있었다.

그가 살아있는 흙을 만져보고 살아있는 옥수수와 깻잎들을 마주했던 기억은 어렸을 적, 방치된 건물 부지가 동네 할머니들에 의해 잠시 텃밭으로 점령되었던 그곳에 따라갔었을 때뿐이다. 그마저도 몇 번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강렬했다. 온갖 식물들과 그 사이를 누비던 수많은 생명, 가다듬는 사람의 정성으로 가득 차있던 그곳은



살아있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였다. 그는 그 속에 쭈그리고 앉아 흙을 만져보고 벌레들과 함께 껌향 향에 빠져들었다. 영원할 것 같던 생명의 세계는 어느 날 '출입 금지' 푯말 아래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그곳은 곧, '스타타워'란 이름을 건 쇠, 돌, 유리로만 이루어진 거대하고 차가운 네모 구조물로 변해버렸다. 진짜 별은 사라졌다.

그때의 기억은 나 자연 씨 마음속에 아주 작은 씨앗으로 들어와 안착한 것 같다. 강렬히 복원하고 싶은 열망이 몇 십 년이 지나 드디어 때가 이르자 조용히 마음속에서 싹을 틔워내기 시작하였다.

작년부터 나 자연 씨는 의식주 모든 생활에 있어서의 '자립력'을 높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소비와 분업화된 서비스에 의 의존으로 모든 문제 해결을 교육받는 현대인, 도시인은 정작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겨우 몇 십 년 전까지 우리 모두는 삶에 필요한 의식주를 대부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제는 불을 피우는 법도,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 법조차 알지 못하는 무능한 개인들이 되어버렸다. 직접 먹을 음식을 손수 기르는 법이나 집을 짓거나 실을 뽑아 옷을 짓는 법을 잃어버린 것은 더 말

할 필요도 없다. 진짜 삶 지식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그는 천천히 실천적 생활에 돌입하였다.

그는 '회귀를 통한 진보'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순식간에 너무도 빠르게 끊어지고 사라져가는 인류 대대의 삶 기술과 지혜들을 최대한 이어나가 온몸에 장착하고 싶다고. 자신의 삶 - 의식주 - 전반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주권과 창조성을 잃지 않겠다고. 과도한 소비와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나 할 수 있는 만큼 자연과 균형 있는 삶을 살아내고 싶다고. 그렇게 나 자연 씨는 '자립적인 삶'이란 이정표를 세우고 발걸음을 시작했다.

그러다 그는 올해 먹거리를 스스로 길러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적 발판을 만들어냈다. 독립 후 8년간의 8번의 이사. 어떤 상황에서건 해를 향해 온 힘으로 앞을 뻗어올리는 식물들처럼 나 자연 씨 또한 햇살을 찾아 끊임없이 환경을 바꾸어 이사해왔는데, 드디어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옥상이 있는 집에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나 자연 씨는 자연인으로 거듭날 준비를 시작하였다.



나날이 늘어가는 식물보육원 입소 어린이들

밭을 수 있는 흙이라곤 하나도 없지만 옥상이 있었다. 남의 땅이라 다가갈 순 없지만 바라는 볼 수 있는 뒷산이 있었다. 겨울엔 집안에 고드름이 얼었지만 사방 뚫린 창으로 언제나 쉬지 않고 새소리와 햇살, 바람이 가득했다. 나 자연 씨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녹색 방수페인트 칠 외엔 아무것도 없는 이 낡은 주택의 옥상은 곧 하나둘 생명이 창조될 우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가 그런 결과를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첫 단추는 그저 마트에서 사 왔던 파 한단의 끈질긴 생명력에서 시작되었다.



나 자연 씨는 이번 이사 때 많은 가전제품에의 의존에서 벗어나기로 하였는데, 그것에는 에어컨, 선풍기, 청소기 및 냉장고, 세탁기가 포함되어 있다. 냉장고 없는 식생활로의 진입이 이사와 동시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그에 맞춘 보존 능력은 미처 학습하지 못했던 나 자연 씨. 그래서 파 한 단은 불운하게도 뒷베란다에 비닐 째 세워진 채 보관되어 버렸다. 시간은 흐르고 거의 한 달이 훌쩍 지나버렸는데 어느 날 그는 파 곁을 무심코 지나다가 무척이나 놀랐다. 흙에서 뿜히고 물 한 방울 받지 못한 채 그 긴 시간을 보냈는데도 파들은 아직 어떻게든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강인한 생명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경이로웠다. 상품을 식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처음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나 자연 씨는 급한 마음에 갖고 있던 작은 화분에 돌과 흙을 넣고 파를 심어주었다. 그리고 시원하게 물을 주었다. 온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이것이 우주의 빅뱅이 되었다. 파를 '냉장고가 아닌 흙에' 심은 사건은 마치 인류가 처음 불을 사용할 줄 알게 된 그 순간만큼이나 그의 삶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다. 파는 1회 성 상품이 아닌 숨 쉬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무지했던 그는 공부해야 할 것이 가득했다. 수경재배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식물과 농사 - 인공적 기르기 -의 기초 개념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다. 토종씨앗들로만 첫 시작을 해보고 싶었지만 구하는 법을 잘 몰랐고 봄날이 이미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 '올해는 연습하는 해로 삼고 우선 식물 생명 순환과정을 관찰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자!'하고 급한 대로 시중 씨앗들을 구입했다. '1) 먹을 수 있는 것으로, 2) 좋아하는 것들로만, 3) 모종이 아닌 씨앗부터 길러 탄생과 성장을 지켜본다'는 원칙하에 무려 13종이나 골라 담았다. 식물 왕초보인 나 자연씨 는 아직 얼마만큼의 흙이 필요할지 모르기에 그냥 질러보는 것이다.

씨앗의 모양들은 참으로 제각각이었다. 그토록 작은 존재를 눈여겨본 것은 난생처음이었다.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씨앗들을 하나씩 인공배지에 옮겨 심고 탄생의 순간을 기다렸다. 물과 햇살이란 열쇠가

나자연씨의 식물보육원 입소 어린이 현황

마트에서 구조	15) 라벤더	토종씨앗 나누고 선물받음
1) 파	16) 로즈마리	30) 돌나물
2) 완두	17) 바질	
3) 양배추		퇴비함에서 싹이 나서 구출
4) 쪽파	토종씨앗 나눔받음	31) 파프리카
	18) 자주감자	32) 쥐눈이콩
다이소에서 씨앗 구매	19) 북방오이	
5) 들깨	20) 강낭콩	먹으려다 꽃,
6) 치커리	21) 서리태콩	싹이 나서 심페소생
7) 양상추	22) 검은땅콩	33) 양배추
8) 갯(적겨자)	23) 상추	34) 생강
9) 다채(비타민)	24) 열갈이배추	
10) 청경채	25) 게걸무	산에서 입양
11) 무	26) 불시금치	35) 쑥
12) 방울토마토	27) 조선파	
13) 당근	28) 목화	씨앗 주움
14) 카모마일	29) 벼	36) 연





생명의 자물쇠를 연다. 모든 조건이 맞을 때 비로소 뿌리 하나가 안심하고 세상으로 고개를 내밀어 생의 시계를 돌리기 시작한다. 씨앗을 심고 나서부터 매 순간이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그 후 연이어 '토종씨앗'과 '목화학교' 강의를 추가로 듣게 되면서 운 좋게 보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토종씨앗들을 11가지나 추가로 나눔 받게 되었다. 독립투사의 사명감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또다시 소분하여 씨앗을 나누기도 했다. 그러니 답례로 '돌나물'과 '달래'가 선물로 돌아오기도 했다. 마트에 가면 뿌리 달린 할인 매대의 채소들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 죄다 데려오고, 산에 가서 튼실한 쑥을 보고 몇 개 입양해오기도 했다. 퇴비로 만들던 음식물 안에서 새싹을 틔워버린 파프리카 씨앗들에 감동하여 다시 구출하기도 하고, 찢어 먹으려던 양배추 조각에서 꽃이 생겨나는 모습에 감화하여 심어주고... 그렇게 나 자연 씨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식물은 죄다 심어 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식물군은 물에서 자라는 연과 곡류인 벼, 숨을 만드는 목화로까지 확장되었고 결과 그의 식물보육원에는 36종의 어린이들이 입소하여 자라나게 되었다.



스티로폼 박스로 하는 옥상 낙원 천지창조

씨앗은 (우선 인공배지에) 뿌려졌다. 하지만 나 자연 씨에게는 옥상만 있을 뿐 아직 육아 지식도, 키울 수 있는 흙도 없었다. 마음이 급해졌다. 씨앗은 무척이나 작지만 그 성장의 속도는 광속이다. 화분과 흙이 필요했다. 그것도 무척이나 깊고 많은! 가장의 어깨는 무겁다.

처음엔 그는 살면서 세뇌 받아왔던 대로 화분을 사러 아무 생각 없이 또 다이소에 가려고 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소비로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1차원적 의존적 시각에서 벗어나 보기로 하였다. 그러자마자 앞집 할머니께서 '스티로폼 박스 화분'에 유유자적하게 고추와 상추를 키우고 계신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께서는 버려지는 스티로폼 박스를 주워와 칼로 구멍을 몇 개 뚫고 양파망을 깔아 똑딱 화분을 만드셨다. 그 간단하고 놀라운 비법을 전수받은 후 고개를 드니, 골목마다 온통 스티로폼 화분들이 이미 가득한 것 아닌가? 답은 항상 가까이 있다. 그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내가 보고자 하기 전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나는야, 스티로폼 박스 수집가~ 네가 루이비통 가방을 셀렉션 하는 동안, 나는 스티로폼 박스를 셀렉션 하지~ 먹지도 못하는 가방 따위는 개나 줘버려~ 난 살아있는 먹을 것을 키울 거란다. 툴루랄라~” 박



자가 맞지 않는 자작곡을 신나게 흥얼거리며 사냥꾼처럼 길을 나서는 나 자연 씨.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그는 이제 길을 나서기만 하면 넘쳐나는 보물들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두 손 가득이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은 특히 보물창고인데 이곳의 물품들만으로도 모든 살림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다. 스티로폼 박스 사냥 실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 이제 온 사물을 ‘화분으로 쓸 수 있냐 아니냐’로 판단하며 바라보는 경지에 이르렀다. 두껍고 깊고 표면적이 넓은 통이라면 당점인 것이다. 전기인두로 물 빠질 구멍을 내고, 안 쓰는 세탁망을 잘라 바닥에 깔았다. 그 위에 돌과 흙을 넣으면 단열성능까지 뛰어난 공짜 화분이 즉석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산과 공터에서 떨어져 있는 낙엽, 돌, 나뭇가지, 흙도 부지런히 조금씩 매일 모아 날랐다. 필요한 흙과 돌을 모두 얻어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일부만 보태고, 대부분의 흙과 돌은 자본의 힘으로 마련해야 했다. 이때 나 자연 씨는 ‘살아있는 진짜 땅’이란 자원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아무것도 없는 옥상에서 식물을 기르기란, 마치 화성에서 감자 키우기에 도전하는 영화 <마션>의 주인공처럼 흙부터 길러다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완전한 무에서 천지창조를 해야 하는 고난이도 레벨이다. 하지만 나 자연 씨는 쓰

리지지 않았다. “태초에 스티로폼 박스와 흙이 있었으니, 이제 만물이 소생하리라!”

자연학교 1학년 4반 입학생

그렇게 장장 3개월에 걸쳐 스티로폼 박스와 온갖 자연물 들을 개미처럼 모아 옥상 낙원을 만들어간 나 자연 씨는 결국 모든 씨앗들을 무사히 흙에 옮겨 심기를 완성하였다. 식물들은 쑥쑥 자라나 꽃까지 피워내었다. 벌과 나비, 파리, 애벌레... 온갖 곤충들이 하나 둘 생겨나 나날이 종 다양성이 늘어났으며, 옥상의 수상한 변화를 처음부터 지켜보던 유일한 애청자 새들도 하나 둘 점점 더 가깝게 놀러 오기 시작했다. 나 자연 씨는 나날이 새까매져갔다. 손과 발, 얼굴이 이제 건강한 농부의 빛깔로 변해갔다. 하지만 그것이 아쉬운 적은 없었다. 옥상에 나가는 순간 환하게 쏟아지는 햇살과 풍성한 식물 가족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제껏 손과 발을 움직여 한 일 중 이토록 가치 있는 일은 없었다.

보이지도 않게 작았던 씨앗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 어느덧 매일 아침 나 자연 씨의 식탁에 풍성한 잎들을 선물해 주었다. 오늘 한 잎 잘라도 내일은 더 큰 잎이 자라있었다. 무한히 창조되는 놀라운 생명의 마법이 매일 그의 옥상에서 살아 펼쳐지고 있었다. 먹기 직전에 바로 수확하는 채소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옥상은 그의 자연 냉장고이다. 그때그때 필요한 재료를 바로 수확하여 딱 먹을 만큼만 요리한다. “고마워, 잘 먹을게!”란 말도 잊지 않는다.

나 자연 씨는 올해 자신은 자연학교에 입학했다고 말한다. 모든 것을 말없이 가르쳐주는 곳. 온갖 곤충과 자라나는 식물들, 흙과 해, 바람,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 삶과 죽음과 변화, 그 순환이 세상의 비밀



을 알려준다. 오직 그 가르침을 제대로 관찰하고 깨달음을 얻는 자만이 장학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학생은 있어도 졸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그 누구도 없을 곳.

그는 이 광대한 학교에 이제 막 입학한 신입생, 겨우 1학년 4반(4개월)이다.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지만 하나하나 경험하고 관찰하며 배워가고 있다. 현재 나 자연 씨는 남은 음식물들로 퇴비로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신의 소변, 생리혈, 더 나아가 언젠가 생태 화장실을 만들어 대변까지 퇴비를 만들어 완전했던 자연순환 시스템에 다시금 합류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손빨래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고, 직접 길러먹는 자연 냉장고를 만들고.. 느리지만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실천으로 대지의 인간으로 다시 걸어가고 싶다고 말한다.

오늘도 옥상의 자연인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연 관찰 중이다. 새와 곤충과 흙, 잎의 소리를 듣고 있다. 이제 이곳은 50여 개의 스티로폼 박스 화분에 온갖 식물들과 곤충들이 어울려 자라나고 있다. 살아있는 옥상 낙원은 그의 자연 냉장고요, 가족이요, 우주의 이치를 알려주는 최고의 스승이다. 모두가 꼭 화분 하나라도 자신만의 자연 냉장고를 만들어 키워보길 바란다는 그의 바람을 대신 전하며, 이 글을 마친다.

* 나자연씨의 '도전! 식량 기르기' 기록 엿보기 : 오늘랩 natodaylab.com

고립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좋은 밥도 먹이자!

‘슬로카페달팽이’가 ‘시시:밥’을 시작한 이유

최영미

정릉시장에 있는 ‘슬로카페달팽이’는 에코 & 슬로라이프를 실천하며 얻은 것을 나누는 공간 사업으로, 2014년에 오픈해 벌써 8년째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 변화의 시점인 것은 확실하지만 많은 이들의 조연대로 배달을 시작하고 밥을 파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다. 힘들다는 이유로 ‘슬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을 단지 깰 수는 없었다. 지난 7년간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며 지켜봐온 K2 인터내셔널코리아의 협업 제안이 있었고, 바라던 대로 의미 있는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방법? 우리와 같은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시시:밥 프로젝트’는 ‘슬로카페달팽이’를 운영하고 「슬로매거진달팽이」를 발행하는 1인 기업 ‘지안’과 고립 청년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 ‘K2인터내셔널코리아(이하 K2)’의 협업 브랜드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눈덩이처럼 불어난 성북구의 코로나19 재앙을 함께 이겨내 보자는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K2가 정릉시장에서 운영하던 ‘돈카페’가 폐업을 했지만,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 했다. 음식업은 K2가 고립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매우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재정비해 시작할 필요가 있었다. 돈가스와 덮밥류를 팔던 ‘돈카페’와 다른 아이টে으로 도시락과 케이터링에 대해 논의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시행했지만 장소를 찾지 못해 쉽게 시작할 수 없었다.

‘슬로카페달팽이’는 개인이 운영하는 서울 변두리 동네카페로, 코로나19 상황에 속수무책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문을 닫는 게 나을 정도였다.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는 것이 의미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K2와 본격적으로 협업 논의가 시작됐다.

결론은 ‘슬로카페달팽이’와 K2의 공동법인 설립. 우리의 공동 브랜드는 ‘시시:밥’, 모든 수익은 K2와 함께 고립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데 사용한다. 서류 정리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교육까지 마쳐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시: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개인 카페였던 ‘슬로카페달팽이’가 사회공헌사업이 된 것이다.

고립 청년은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조울증 등 마음의 병으로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방문까지 걸어 잠근 20~30대를 일컫는다. 이들이 길게는 20년 이상 세상과 단절되어 살다가 그나마 K2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온 것은 매우 큰 변화이고, K2는 공동체 생활은 물론 이들이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유일

한 고립 청년 지원 기업으로 갈 곳 없는 청년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본사는 일본이고, 호주, 한국 등에 지사가 있다.

음식점 운영은 이들이 선택한 사회화 프로그램으로 30여 년 넘게 좋은 성과를 거둬 자체 식품을 개발해 판매까지 한다. 한국 K2의 코보리 모토무 대표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었다. 그간의 경험으로 기존 운영 방침에서 벗어나 한국 실정에 맞는 음식점을 운영해보고 싶어 했고, 7년간의 교류를 통해 ‘슬로카페달팽이’에 협업을 제안한 것이다. 좋은 음식을 한다는 것,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철학에 맞게 가게를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두 회사 모두 신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슬로카페달팽이’는 고립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 장이고, 요즘 가장 힘든 청년(20~30대)들에게 ‘좋은 음식을 저렴하게 먹게 하자’는 취지로 메뉴도 개발했다. 심플하게 조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청년들이 집에서든 해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하나둘 함께 만들어가며 큰 꿈을 꾸고 있다. 슬로카페달팽이에서 시작해 정릉시장 곳곳에서 고립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가길 바란다. 나의 역할은 교육, 메뉴 개발, 식재료 공수, 그리고 영업과 마케팅이다.

‘시시:밥’은 때 時 시 詩 자를 써서 ‘시간을 거스르지 않고 자란 제철 식품으로 만든 좋은 밥으로 배를 채우고, 아름다운 시 한 편으로 마음을 채우는 밥상’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 매주 시를 한 편 정해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좋은 음식이란 팜 투 테이블, 친환경, 농부와 생산자 직거래로 얻은 좋은 식재료와 양념류로 전 성분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쓰는 재료는 유기농과 무농약, 친환경은 물론 자연농에 ‘맛의 방주’에 등재된 품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가장 기본인 ‘시시나물밥’이 6,000원이다. 추가 메뉴로 해방풍제육볶음이 있는데 2,000원이다. 예산지역 토속음식으로 맛의 방주에 오른 ‘삭힘김치 감자탕’은 9,000원이다. 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팔아서 남느냐고 묻는다. 가격을 정하기까지 고민과 논의의 시간이 길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장사이니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취지를 이야기하니 생산자들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식재료를 공급해 준다. 간혹 기부도 들어온다. 특히 순천향대 식품영양학과 음식시민 동아리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달에 2~3회 찾아와 자원봉사를 하고, 올 때 마다 유기농 쌀을 20킬로그램씩 기부해준다. 우리는 이러한 조력자들이 늘어날 것을 믿는다.

지난 4년간 해온 ‘식9데이’ 취지는 혼밥족으로 대표되는 청년들에게 좋은 밥을 먹이겠다는 것이었다. 매달 1회 하던 밥 모임을 매일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흥분된다. 얼마 전 20대의 우울감이 70퍼센트로 가장 높다는 기사를 봤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이지만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나 좋은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식량권이 헌법에 보장되지 않는 나라다. 식재료나 금전적 후원이 늘어갈수록 밥값을 내릴 생각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청년이 청년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돕고 싶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13-384249 예금주 시시밥
후원식재료 보낼 곳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18길 84 슬로카페달팽이
단체주문 및 문의 070-7537-2299, 010-8652-1223
인스타그램 @slow_dalpaengy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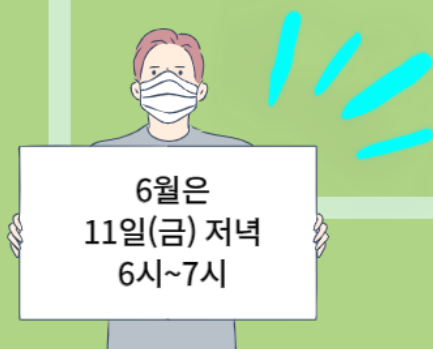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들어보셨나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7월 정릉에선 코로나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론장이 열렸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죠. 공론장을 통해 뭐라도 실천을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해 가을 가칭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준비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드디어 2021년 2월 50여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에 모여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국제적 연대를 해오며 전국 단위의 기후위기 활동을 해온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함께 보다 큰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성부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매달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에 지역단위의 기후위기극복 캠페인을 벌이고 (아래 포스터 참고), 지구의 날, P4G 반대 행동 등 전국단위의 기후위기 극복 행동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사오니, 기후위기가 걱정인 분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무언가라도 함께 하고픈 분들은 언제든지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010-7266-4705로 연락주세요.

2021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연중 일정표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평일 피켓팅

일자 | 매달 두번째 금요일

시간 | 오후 6시~7시

준비물 | 손피켓은 준비 되어있어요.

장소 | 한성대 입구역 분수마루에서

간단한 공연과 피켓팅 진행합니다.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오픈채팅방 입장하기
<https://open.kakao.com/o/g2CHviXc>

주말 거리행진



일자 | 매달 네번째 토요일

시간 | 오후 6시~7시(하절기^^)

준비물 | 현수막 준비 되어있어요. ^^

장소 | 한성대입구역 분수마루 인근 일대 행진

